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약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WORLDVIEW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Sola Scriptura

10월 기독교세계관강좌 토크콘서트

종교개혁과

오늘

2014. 10. 23 (목) 저녁 7:30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

(본관이 아닙니다. 합정역 7번출구 뒤돌아서 200M 직진)



- 1부 종교개혁의 사상
- 2부 종교개혁과 기독교세계관
- 3부 종교개혁이 '오늘'에게



이은선 교수

현재 안양대학교에서 역사신학 교수로 있으며, 신학대학원 원장과 한국복음주의 역사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개혁신학회 협동총무이다. 칼뱅과 종교개혁 연구의 권위자이다.

Diva Soul

영혼(soul)을 담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Dival!

- 2013 디바소울 정규1집 'The First' 발매
- 2012 Hispop 2집 'His Love' - Oh my love (feat.)
- 2012 해나리 E·P 앨범 - Get up! (feat.)
- 현 CTS Joy 라디오 'kids, for you' MC 진행 중

신청 info@worldview.or.kr (이름, 소속,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문의 02) 754-8004 (김고운 간사)

꿈꾸는 청년을 위한 토크콘서트

신국원과 양희송의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시월의 마지막 밤 10/31(금) 저녁 7시

삼일교회 C관 2층에서

복있는 사람

WORLDVIEW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로잔 언약과 사회적 책임

손봉호 (대표주권)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로잔 회의가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을 발표하여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자극을 주었다. 성경의 권위, 전도의 특성, 세계 선교의 중요성과 긴급성,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문화의 문제들, 영적 전쟁 등에 대한 복음주의의 입장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이 이미 많은 관심을 쓰고 있었던 것들이었지만 한 가지 예외가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책임에 관한 언급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어디서나 정의와 화해를 이루시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억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억압받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등한시한 것과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을 회개한다.” (언약 5장) 이로써 로잔 언약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한 ‘복음주의’를 전통적인 ‘개혁주의’와 매우 가깝게 만들었다. 개혁주의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인데, 하나님이 온 우주의 절대권자라면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그의 통치를 받는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동시에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복음주의는 그동안 사회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영혼 구원에 전력을 기울이고 병든 사람,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보라는 명령에는 어느 정도 순종했으나 사회 정의에 관해서는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다. 성경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사회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과거에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주로 자연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뿐 사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19세기까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은 ‘사회’를 인식하지 못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800년까지 ‘사회’란 단어조차도 없었다.

그러나 과학과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 공동체가 인위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자 사람의 삶은 점점 더 사람과 사회에 의하여 결정되기 시작했다. 땅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다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배달되는 수도물을 마시게 된 것이다. 자연의 번덕과 위협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어 삶은 많이 편리해졌으나 이제는 자연의 자리에 들어 선 사람과 사회가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행복을 파괴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불행하게도 사람과 사회가 행사하는 힘과 그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물론 자연도 항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 공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은 인간은 차별을 없애지 못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을 확대하기도 했다. 옛날에는 중병에 걸리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죽었지만 지금은 선진국 주민이나 돈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후진국 주민이나 가난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당해야 할 고통에서 차이가 더 커진 것이다.

과거에는 약자가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대부분 자연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항의할 수도 없었고 항의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그 자연의 힘은 비록 변덕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사람을 의도적으로 차별대우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고통과 불행을 모두 '운수소관'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크게 억울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3/4은 다른 사람과 사회에 의하여 가해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자들이다. 그리고 약자가 당하는 고통은 그저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 강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쾌락을 누리게 위함이다. 여기서 사회정의의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 특히 강자와 약자 사이에 불공정한 관계가 일어나고 사회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다. 정의의 문제가 대두되고 억울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 간, 특히 사회적 강자와 약자 간의 불평등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기에 시대마다 그 시대가 필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사회가 중요해진 오늘날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이다. 로잔 언약은 바로 이 시대에 주는 성경의 메시지를 찾아낸 것이다.

철학자 밀(J. S. Mill)이 지적한 것처럼 정의에 대한 인식은

먼저 부정의(injustice)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일어난다. 즉 부정의가 있기 때문에 정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모든 시대에 억울함이 있었고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억울함에 민감해야 한다. 구약시대에는 고아와 과부가 억울함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원을 무시한 관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예수님 시대에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세리처럼 사람들의 무시를 받은 사람들이 약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으셨다. 돈이 우상이 된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들의 아픔에 민감해야 하고 이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제도를 고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뿐 아니라 가난한 나라와 그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고, 가난한 나라의 고통이 더 크므로 더 큰 책임감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요즘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에 한국의 기독교 구호단체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은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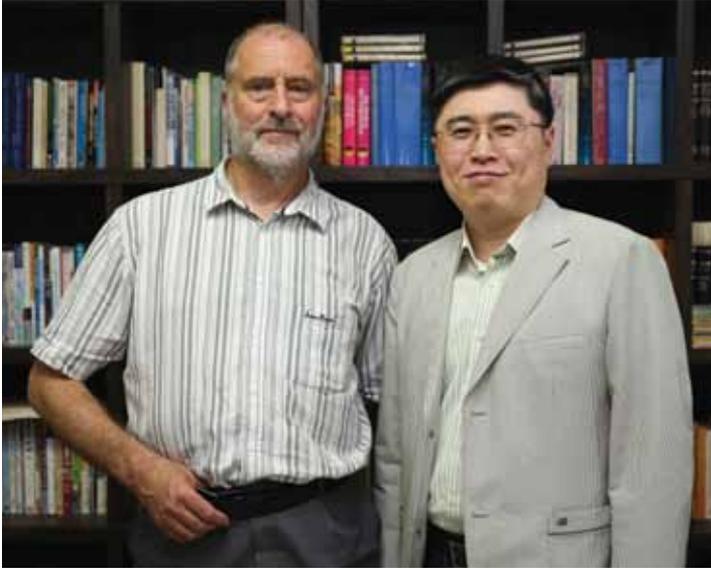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난해져야 한다. 낮아지고 겸소해야 남을 더 잘 위로하고 도울 수 있으며, 정의로운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는데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한국 국민이 크게 감동한 것은 그가 높아지고 사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겸소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몸짓이 아니라 진심과 평소의 삶에서 우려난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런 점에서는 한국 교회가 그로부터 많이 배워야 한다. 지금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로잔 언약에 충실하기에는 지나치게 부요하지 않나 한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Contents

WORLDVIEW · OCTOBER · 2014



COVER STORY

08 커넥스토리 세상에 관심 갖기_앤드류 바스덴

SPECIAL

16 기획칼럼 로잔 언약 전문(1974)

20 기획칼럼 로잔 운동의 역사, 정신과 신학, 그리고 한국 교회_최형근

26 기획칼럼 나의 목회와 로잔 언약_이문식

COLUMN

04 대표주관 로잔 언약과 사회적 책임_손봉호

32 일상다반사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 읽기: 구속과 성경 읽기_전성민

36 공감의 하나님, 공감의 경제학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_김태황

CULTURE

52 불면레시피 세계관 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과 함께

56 유머 이상한 가족_손봉호



WORLDVIEW

2014년 10월호 WORLDVIEW 통권 172호



표지인물
앤드류 바스덴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의 눈여겨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



BOOK REVIEW

- 40 서평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_신경규
- 44 서평 복음주의 신앙 선언_김승호
- 48 서평 화폭에 담긴 성경이야기를 이야기하다_추태화

NEWS

- 57 사무국 뉴스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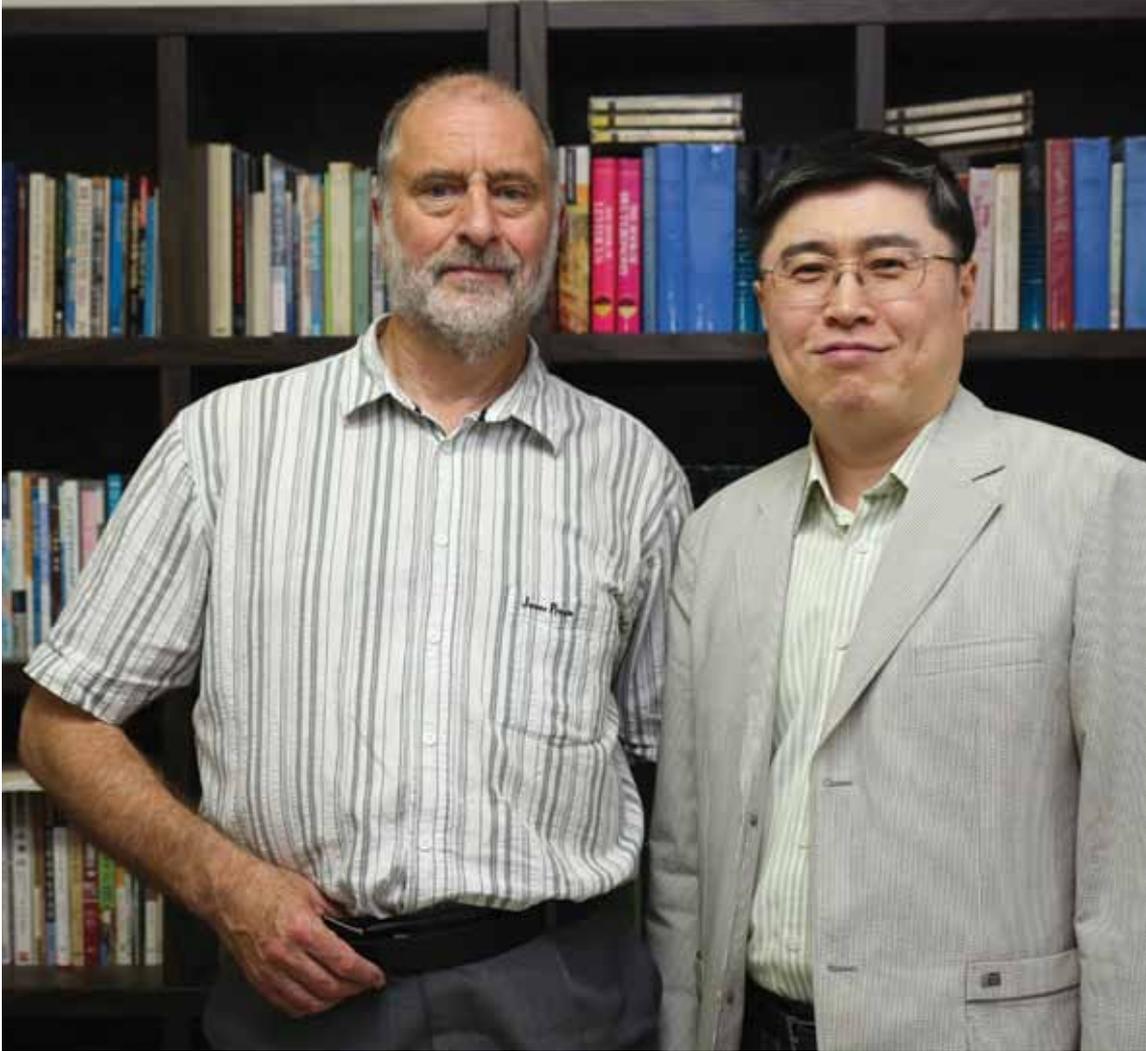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대표주관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편집인	신효영
편집위원	김지원, 권태경, 박영주, 백승현, 송태현, 양성만, 이상무, 이우성, 장수영, 전요섭, 조영길
자문위원	신국원, 이상정, 조성표, 최현일
교정/교열	김선경
사진	장형규
편집	김소라
디자인	황정희
제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한강르네상스빌 A동 1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모바일매거진 m.worldview.or.kr



Andrew Basden을 만나다 세상에 관심 갖기

🗣 인터뷰어_최용준 (한동대 글로벌에디슨학부 교수, 학술지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영국 쉐포드대학(University of Salford)의 앤드류 바스덴(Andrew Basden, Professor of Human Factors and Philosophy of Information Systems) 교수를 본 동역회 실행위원이자 학술지 <신앙과 학문>의 편집위원장인 한동대 최용준 교수가 만났다.



최용준 :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바스덴 : 12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기독교인으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그것이 제 삶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시는 일들을 저는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라는 말씀에 저의 생각이 깨어졌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라도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12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학계로 복귀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환경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Green Party(녹색당)의 일원으로 섬기면서 기쁨을 얻었고 시간이 갈수록 이 일에 대한 확신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저 ‘괜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일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이를테면 종말에는 지구가 불에 타버리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폴 마샬(Paul Marshall)의 <Heaven is Not My Home>(『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IVP 역간)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풀은 제가 가진 의문들을 풀어 주었고, ‘순종이 명분보다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교훈도 주었습니다. 결국에는 불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연과 세상의 모든 활동들이 재림 이후에도 지금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우리뿐 아니라 온 피조물에 미친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창조된 자로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는 창세기 1장 말씀과 연결되면서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책임이자 소명이며, 더불어 예술, 학문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로서 이 부분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세상 학문에 기독교적 정신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의미의 구원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용준 : 이번엔 한국을 방문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바스덴 : 강연이 있어 왔습니다. 제 전문분야인 정보통신기술과 다양한 학문의 융합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연구한 도예베르트 철학과 관련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연구도 드문 일인데 말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전문분야를 연관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한국의 훌륭한 기독교학자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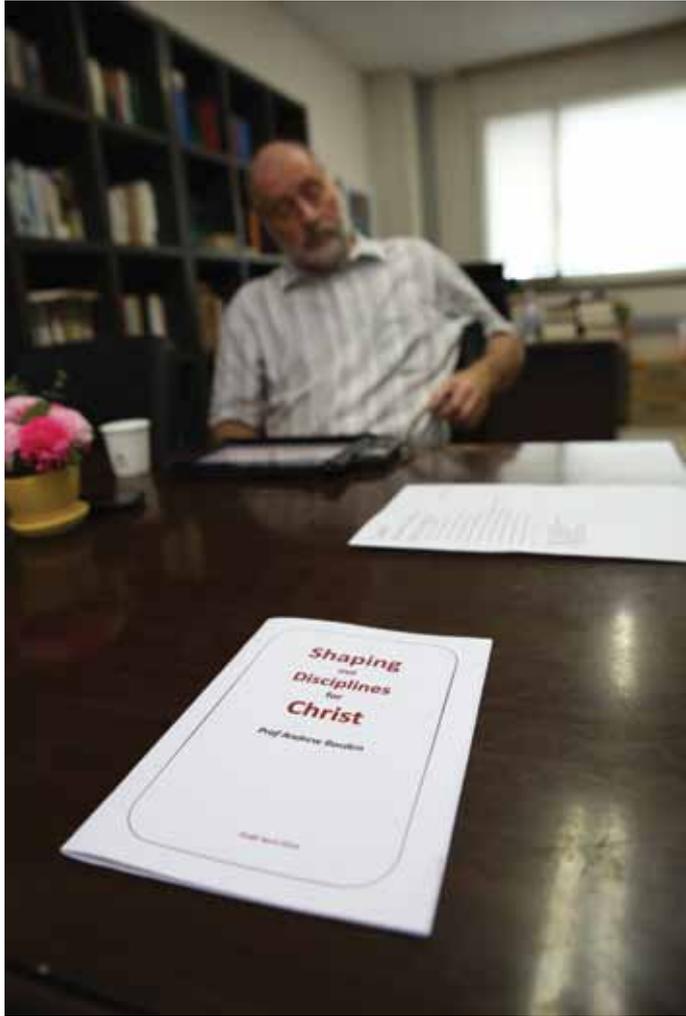
최용준 : 고신대, 한동대, 백석대 등 한국의 기독 대학들과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바스덴 : 사실 기독교 대학은 영국에서는 낯선 개념입니다. 학문의 풍토는 열려 있지만, 기독교인만 참여하는 곳 정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인들의 성장을 위해 온실 역할을 하는 폐쇄적인 기관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국의 기독교 대학들 중에는 오히려 비기독교인의 비율이 더 높은 곳도 있고 각각의 정책도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에는 오늘날 영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미국이 잃어버린 열정과 힘이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환경 운동을 이끄는 기독교인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 기독교가 침체에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과거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유럽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기독교는 구원받아 성결해진 삶, 현재에 중점을 둡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이미 받은 구원과 그 삶을 넘어 세계와 자연, 환경에 사명의식을 가진다면 이 침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용준 : 좋은 지적이십니다. 일반대학에서 기독학자로 지금까지 섬기고 계신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동료 교수들, 학생, 또는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 생길 적은 없었는지요.

바스덴 : 글썽요.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진 학자들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게 마련이죠. 해석주의자들은 실증주의자들을, 실증주의자들은 해석주의자들을 멸시하는 이런 식의 긴장감 말입니다. 또 교수들 간 업무 분담에서 다소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비기독교인이라도 나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최용준 : 교수님의 주요 연구분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바스덴 : 제 전공은 정보통신시스템, 즉 정보통신기술 활용입니다. 교수직을 맡게 되었을 때, 학장을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연구하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헤르만 도예베르트라는 네덜란드 기독학자와 정보통신체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라고 하더군요. 일반대학에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도예베르트의 기독교적 관점을 언급은 했지만 강조하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도예베르트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의 학문이 훌륭하기에 일반대학에서도 인정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학자들과

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과정 속의 개체가 갖는 의미와 규범성 등을 강조했고 현실의 다양성과 일관성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에 관한 한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철학자이며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최용준 :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삶과 학문을 통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바스덴 : 저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등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독교적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을 실행하고, 디자인하고, 이론을 세우는 데 성경적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문에는 학문 고유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사례를 본 적은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학문과 신앙 사이의 접점을 찾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철학은 확실히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보통신계에 다양성과 섬김의 중요성, 현실 세계의 규범성을 인정하는 기독교적 가치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최용준 : 영국에도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고자 하는 단체나 운동이 있는지요.

바스덴 :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속한 Christian Academic Network가 영국 내 교수 및 교직원들에게 워크샵과 다양한 책자들을 통해 기독교적 관점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 West Yorkshire School Of Christian Studies(WYSOCS)라는 단체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적 신앙관을 다루면서 Transforming the Mind 컨퍼런스를 매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 신앙관과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논할 뿐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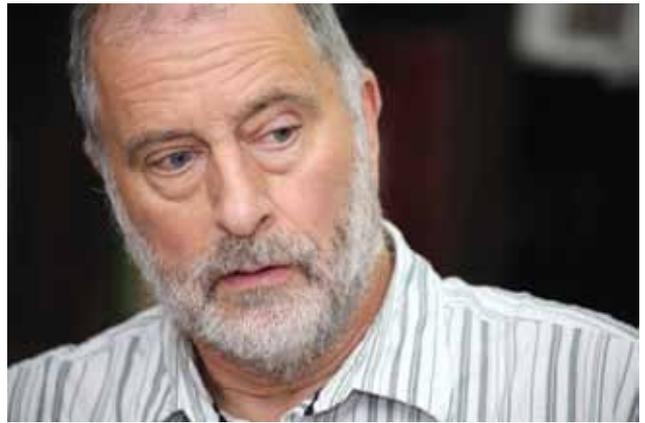


최용준 :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바스덴 : 우리가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나 기후 변화, 기술의 발전, 경제 시스템, 국제적 정보통신 등 우리는 이제까지와 질적으로 다른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 가능성을 리드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세상에 반응하는 것 말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들을 나누고 세속적인 것을 무시합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 이러한 성속의 이원적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영국의 경우, 아직은 미미하지만 30년 전에 비해 훨씬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30년 전만해도 기독교는 오래되고 뒤쳐진 것으로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영국 교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조금씩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를 다양한 종교 중 하나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동성애 문제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동성애 반대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구닥다리 종교수준으로, 또는 아예 악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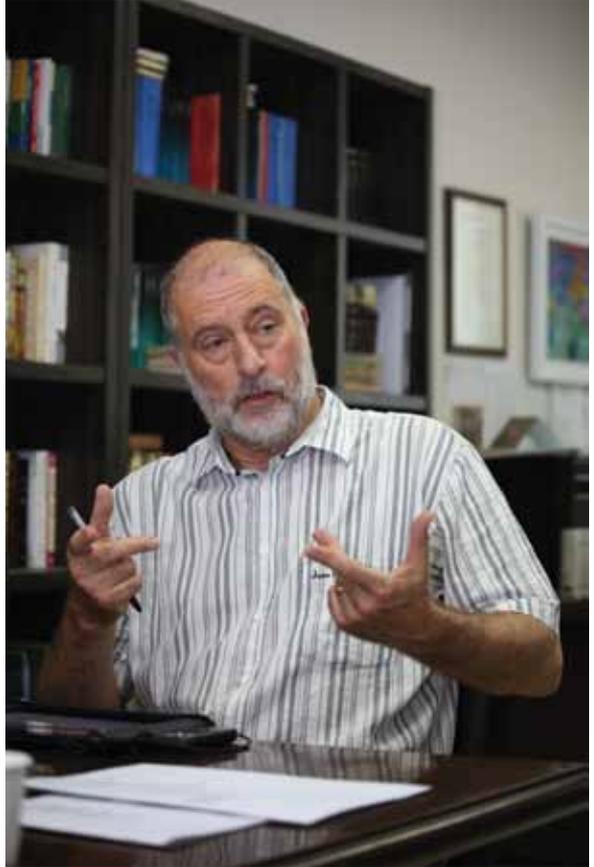
최용준 : 요즘 영국의 기독교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바스덴 : 영국의 기독교는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책임문제에서 그러합니다. 1990-2000년 초에는 이 책임에 동의했지만,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반환경주의라든지 반풍력운동, 기후변화에 대한 무시 등 새로운 사회적 문화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쾌락적인 생활방식에 근거한 빈곤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터를 후시 다시 허무시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유럽 기독교의 영광이 허물어졌습니다. 미국 또한 그렇습니다. 영국은 심령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졌습니다. 언젠가는 회복되겠지만 가까운 미래는 아닌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에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다함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친절하고, 선량하며, 관계에 믿음을 가지고, 온화하며, 절제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도 전쟁 이후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기독교만 나무심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촉진하고 도움을 준 것은 확실합니다. 영국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 소망합니다.

한동대 학생 한 명이 사람들의 참여로 전 세계에 숲을 만드는 트리플래닛(Tree Planet)이라는 환경 관련 소셜벤처(Social Venture)를 창업하여, 한국뿐 아니라 몽골 및 중국에서도 나무심기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사상이 녹아 사회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움직이는 것 아닐까요?



최용준 :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바스덴 : 우선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과거 한국은 선교 대상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선교로 지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남은 세 개의 대륙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그 일을 해내기를 바랍니다.

최용준 : 감사합니다.

베들레헬은 지금



베들레헬은 지금

양기선 지음 | 믿음의 글들 323
A5변형 | 304면 | 15,000원

홍성사.

<http://www.hsbooks.com>

기독교대학생의 눈으로 본

르포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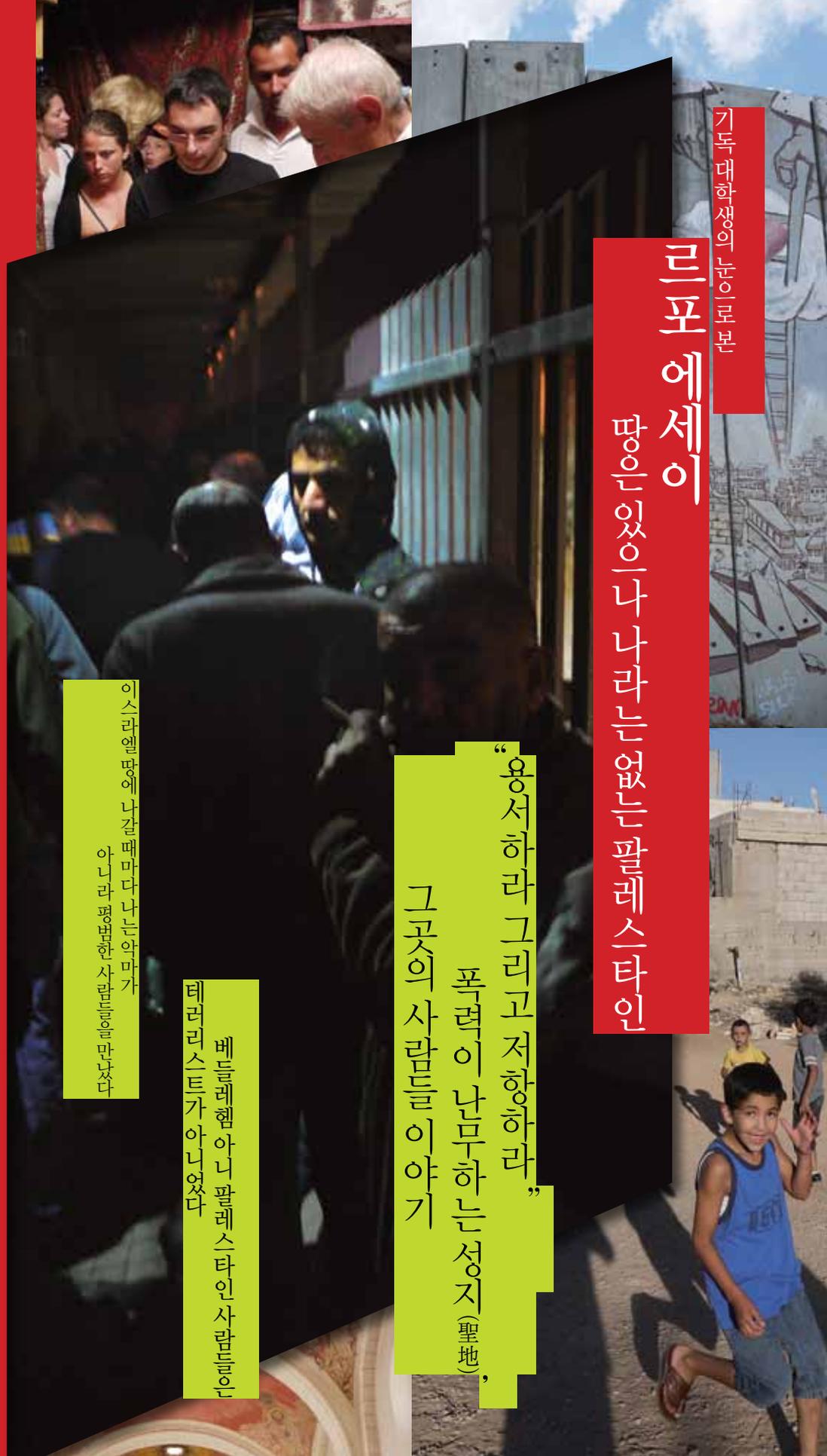
땅은 있으나 나라는 없는 팔레스타인

“용서하라 그리고 저항하라”

폭력이 난무하는 성지(聖地),
그곳의 사람들이 이야기

베들레헬은 아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다

이스라엘 땅에 나갈 때마다 나는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만났다



WORLDVIEW SPECIAL

고백하는 믿음, 참여하는 신앙

오고가는 것,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리듬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존 스토틀

다시,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다.

-
1. 로잔 언약 전문(1974)
 2. 로잔 운동의 역사, 정신과 신학, 그리고 한국 교회
 3. 나의 목회와 로잔 언약



로잔 언약 전문(1974)

머리말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150여 개국에서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그 크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으로 기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행하시는 일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우리가 행한 실패들을 통회하고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복음화 사역에 도전을 받는다. 우리는 복음이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며 이 복음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분부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그분의 은혜로 결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과 결단을 확인하고 이 언약을 공포하려 한다.

1. 하나님의 목적

우리는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 되신 영원한 한 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한다. 하나님은 뜻하신 목적에 따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분은 자기를 위해 세상에서 한 백성을 불러내시고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리스도의 몸 건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한 종과 증인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종종 세상과 동화하거나 혹은 절연함으로써 우리 소명을 부인하고 선교사역에 실패했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고백한다. 그러나 복음은 비록 질그릇에 담겼을지라도 귀중한 보화임을 기뻐하며 이 보화를 성령의

능력으로 널리 알리는 과업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고자 한다.

(사 40:28, 마 28:19, 엡 1:11, 행 15:14, 요 17:6·18, 엡 4:12, 롬 12:2, 고전 5:10, 고후 4:7)

2. 성경의 권위와 능력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신적 영감과 진리성, 권위를 믿는다. 성경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유일한 기록된 말씀으로 그 모든 주장하는 바에 전혀 오류가 없으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유일하게 오류가 없는 규범임을 믿는다. 또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분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심을 확신한다. 성경 말씀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계시를 통해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성령님은 모든 문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이 진리를 그들의 눈으로 새롭게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양의 지혜를 온 교회에 더 풍성하게 나타내신다.

(딤후 3:16, 뱌후 1:21, 사 55:11, 롬 1:16, 고전 1:21, 요 10:35, 마 5:17-18, 유 3, 엡 1:8·17, 3:10-18)

3.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전도 방법은 여러 가지이나 구주는 오직 한 분이요, 복음도 오직 하나임을 우리는 확인한다. 우리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불의로 진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여하한 형태의 혼합주의와 그리스도가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한 대화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손상시키므로 거부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신인(神人)으로 죄인을 위한 유일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 원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구원의 기쁨을 거부하고 스스로 정죄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떠난 자이다.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혹은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더구나 모든 종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공한다고 보장하는 것도 아님을 확인한다.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 전하는 것은 오히려 죄인들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며 마음을 다한 회개와 신앙에 의한 인격적 헌신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맞이하도록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으셨으며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날을 간절히 고대한다. (갈 1:6-9, 롬 1:8-32, 딤후 2:5-6, 행 4:12, 요 3:16-19, 벧후 3:9, 살후 1:7-9, 요 4:42, 마 11:28, 엡 1:20-21, 빌 2:9-11)

4. 전도의 본질

전도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여기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통치하시는 주이시며 지금도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사함과 성령님의 자유케 하는 은사를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세계 속의 그리스도인의 현존은 전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는 목적의 대화도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전도 그 자체는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서 선포하여 사람들이 그분께 개인적으로 와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도록 설득하는 일이다. 복음의 초대에 제자로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의 새로운 공동체와 동일시함을 분명히 하도록 부르신다. 전도의 결과는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교회와의 협력, 세상 안에서의 책임 있는 봉사를 포함한다.

(고전 15:3-4, 행 2:32-39, 요 20:21, 고전 1:23, 고후 4:5, 고후 5:11·20, 눅 14:25-33, 막 8:34, 행 2:40·47-8, 막 10:43-45)

5.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자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전체에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시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을 공유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누구나 타

고난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로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하며 누구도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점을 등한시해 온 것과 종종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 대해 참회한다.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사회 활동이 곧 전도가 아니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이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교리,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필수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종류의 소외와 압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부정이 있는 곳 어디서나 그것을 비난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의 나라에 중생하며,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그 나라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전파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감당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 17:26·31, 창 18:35, 시 45:7, 사 1:17, 창 1:26-27, 레 19:18, 레 19:18, 눅 6:27·35, 약 3:9, 요 3:3·5, 마 5:20, 마 6:33, 고후 3:18, 약 2:14-26)

6. 교회와 복음 전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구속 받은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깊고도 희생적으로 침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비기독교 사회에 침투해 들어가야 한다.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최우선은 전도다. 세계 선교는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것을 요구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의 중심에 있으며, 복음을 전파할 도구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설교하는 교회는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 교회가 만일 복음을 배반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살아 있는 믿음이 없다든지, 사람들에게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거나, 사업 추진과 재정 등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한 정치성이 결여될 때, 교회는 오히려 전도의 걸림돌이 되어 버린다. 교회는 기관이라기보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이며, 어떤 특정한 문화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제도들이나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요 17:18, 20:21, 마 28:19-20, 행 1:8, 20:27, 엡 1:9-10·3, 9-11, 갈 6:14·17, 고후 6:3-4, 딤후 2:19-21, 빌 1:27)

7. 전도를 위한 협력

교회가 진리 안에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이룩하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는 확인한다. 또한 전도도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는데, 우리가 전하는 화해의 복음을 불일치가 무너뜨리지만, 하나 됨은 우리의 증거를 더욱 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적 일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 수 있고, 그것이 반드시 전도를 증진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동일한 성경적 신앙을 함께하는 우리는 교제와 일과 증거에 있어서 긴밀하게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의 증거가 때로는 죄악 된 개인주의와 불필요한 중첩 때문에 저해 되었음을 고백한다. 우리는 진리와 예배와 거룩함, 선교에 있어서 좀 더 깊은 일치를 추구할 것을 서약한다. 교회의 선교를 촉진하기 위

해 그리고 자원과 경험을 서로 나누기 위해 지역적이고 기능적인 협력을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요 13:35, 17:21-23, 엡 4:3-4, 빌 1:27, 요 17:11-23)

8. 교회의 선교 협동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동트고 있음이 기쁘다. 서방 선교의 주도적 역할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은 신생 교회들 중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거대한 새로운 자원을 불러일으키고 계시며, 전도의 책임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자신이 속한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또한 세계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과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의 선교 책임과 역할에 대한 재평가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들 사이의 협동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교회의 보편적 성격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성경 번역, 신학 교육, 매스미디어, 기독교 문서 사역, 복음 전도, 선교, 교회 갱신, 그리고 기타 전문 영역에서 일하는 여러 단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단체들도 교회 선교의 한 부분으로서 효율성을 평가하도록 지속적으로 자기를 반성해야 한다.

(롬 1:8, 빌 1:5, 4:15, 행 13:1-3, 살전 1:6-8)

9. 복음 전도의 긴박성

전 인류의 3분의 2이상인 27억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직도 등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와 온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견책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많은 지역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례 없이 수용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교회와 모든 선교 단

체가 미전도 종족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임을 확신한다. 토착 교회의 자립심을 기르고 아직 미복음화된 지역으로 그 자원을 보내기 위해 때로는 이미 복음화된 나라들의 해외 선교사와 선교비를 감축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선교사들은 겸손한 섬김의 정신으로 더욱 자유롭게 육대주에서 교류해야 할 것이다. 목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급적 단기간에 모든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희생 없이 이 목표를 성취하겠다는 기대는 없다. 우리 모두는 수백만이 겪고 있는 빈곤에 충격을 받으며, 이를 발생시키는 불의에 분노한다. 우리 중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구제와 전도에 더 많이 공헌할 수 있도록 검소한 생활 양식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의무임을 수용한다.

(막 16:15, 요 9:4, 마 9:35-38, 사 58:6-7, 약 2:1-9, 고전 9:19-23, 약 1:27, 마 25:31-46, 행 2:44-45, 4:34-35)

10. 전도와 문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 개발에는 창의적인 개척 방법이 요청된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인도 아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박히면서 자신들의 문화와도 긴밀하게 관련된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다. 문화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는 대단히 아름답고 선하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때문에 전부 죄로 물들었고 어떤 것은 악마적이다. 복음은 어떤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은 모든 문화를 복음 자체의 진리와 정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모든 문화의 도덕적 절대성을

주장한다. 선교는 이제까지 복음과 함께 이질적 문화를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교회는 종종 성경에 매이기보다 문화에 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스도의 전도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도록 자신의 가장 진실된 인격을 제외한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는 문화를 변형시키고 풍요하게 만들려고 힘쓰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

(막 7:8-9, 13, 창 4:21-22, 고전 9:19-23, 빌 2:5-7, 고후 4:5)

11. 교육과 지도력

우리는 때로 교회의 깊이를 포기하면서 성장만을 추구해 왔고, 그리스도인의 양육과 복음 전도를 분리해 왔음을 고백한다. 또한 일부 선교현장에서는 현지 지도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훈련하고 격려하는 일에 태만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는 토착화 원리에 헌신하며 모든 교회가 현지 지도자를 세워 그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지도력 방식을 보여주기를 고대한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를 위한 신학 교육을 향상할 필요가 큼을 인정한다. 모든 나라와 문화에서 교리, 제자 훈련, 전도, 양육, 섬김의 영역에 목사와 평신도를 위한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 훈련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 지역 독창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골 1:27-28, 행 14:23, 딤후 1:5-9, 마 10:42-45, 엡 4:11-12)

12. 영적 싸움

우리는 악의 권세, 능력들과의 부단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교회를 전복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과업을 좌절시키려

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진리와 기도의 영적 무기를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야 할 필요를 알고 있다. 이는 교회 밖의 거짓 이데올로기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왜곡시키며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거짓 복음으로 대적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적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깨어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속적 생각과 행위들, 즉 세속주의에 면역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양적, 영적인 교회 성장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정당하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우리는 때때로 이를 소홀히 했다. 또 복음에 대한 반응을 얻어내는 것에만 집착해서 메시지를 타협했고 강압적 기교를 통해 청중을 조종했으며 지나치게 통계를 집착하거나 혹은 부정직한 통계를 만들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이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이 교회 속에 있어서 는 안 된다.

(엡 6:12, 고후 4:3-4, 엡 6:11, 13-18, 고후 10:3-5, 요일 2:18-26, 4:1-3, 갈 1:6-9, 고 후 2:17, 4:2, 요 17:15)

13. 자유와 핍박

모든 정부는 교회가 간섭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평화와 정의와 자유의 상태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나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보편적 인권 선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종교를 믿고 전파할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그들에게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부당하게 투옥된 사람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들을 위해 깊은 우려를 표명

한다. 우리는 그들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며 힘을 것을 약속한다.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위협하는 어떤 것도 거부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불의에 항거하며 복음에 힘써 충성할 것이다. 핍박이 반드시 함께할 거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딤후 2:1-4, 골 3:24, 행 4:19, 5:2, 히 13:1-3, 눅 4:18, 갈 5:11, 6:12, 마 5:10-12, 요 15:18-21)

14. 성령의 능력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증거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신다. 성령님의 증거가 없으면 우리의 증거도 헛되다.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새로 탄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자기 모순에 빠지고 성령님을 소멸케 한다. 세계 복음화는 오직 성령님이 교회를 진리와 지혜, 믿음과 거룩함, 사랑과 능력으로 새롭게 할 때에만 이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할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한다. 성령님의 모든 열매가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고, 그분의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하도록 기도할 것을 호소한다. 그때에 비로소 온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합당한 도구가 될 것이고, 온 땅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행 1:8, 고전 2:4, 요 15:26-27, 16:8-11, 고전 12:3, 요 3:6-8, 고후 3:18, 요 7:37-39, 살전 5:19, 시 85:4-7, 갈 5:22-23, 롬 12:3-8, 고전 12:4-31, 시 67:1-3)

15.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권능과 영광 중에 인격적으로 그리고 가지적으로 재림하시어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다. 이 재림의 약속은 우리의 복음 전도를 가속화하는데, 이는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의 중간 기간은 종말이 오기 전에는 일을 멈출 자유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교로 채워져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선행자로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리라는 경고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이 땅에 유포파이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교만과 자기 확신의 환상으로 간주하여 거부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온전케 하실 것을 확신하며 공의가 거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그날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고대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우리를 재헌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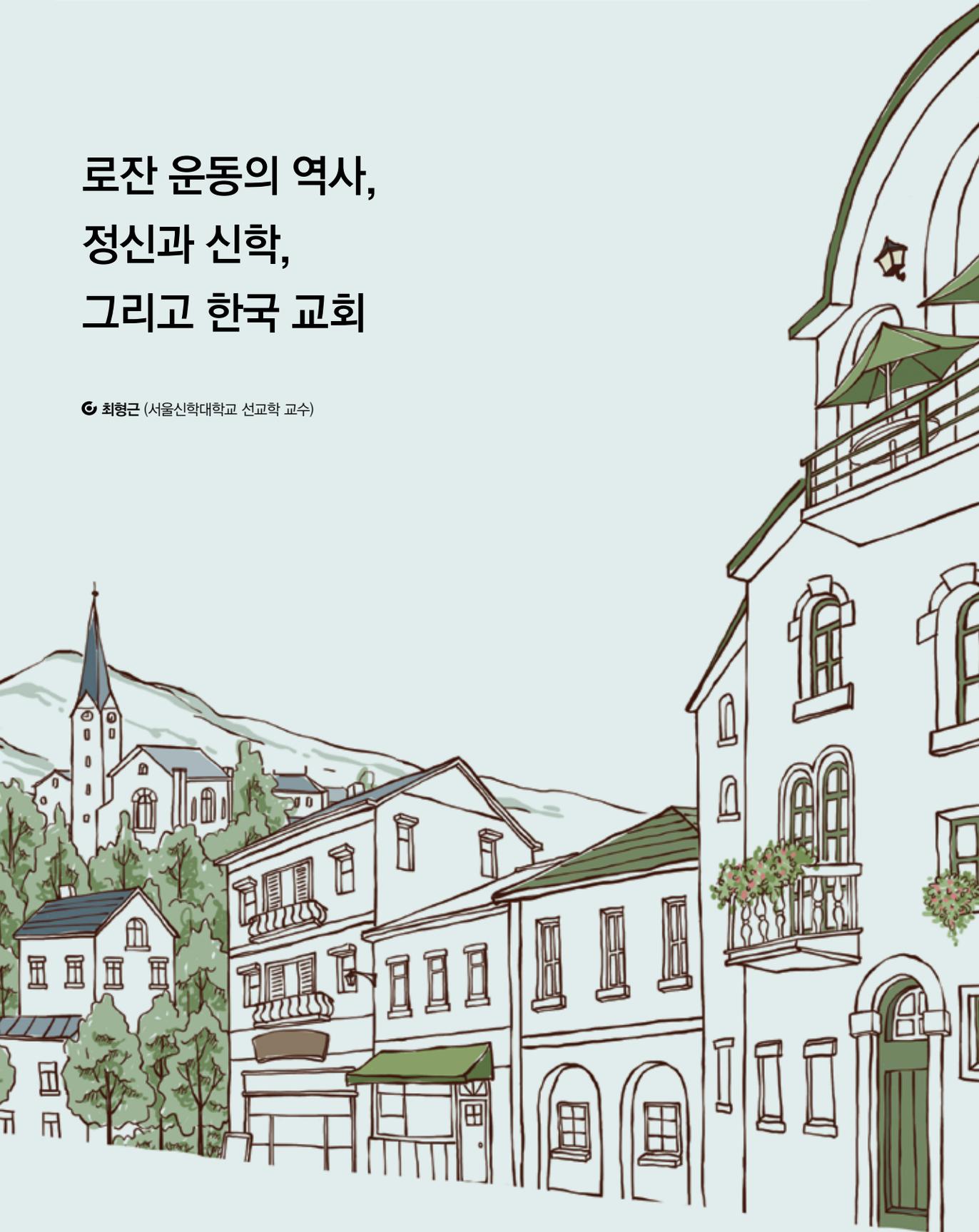
(막 14:62, 히 9:28, 막 13:10, 마 28:20, 행 1:8-11, 막 13:21-23, 요일 2:18, 4:1-3, 눅 12:32, 계 21:1-5, 벰후 3:13, 마 28:18)

맺는 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앙과 결심에 따라 우리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일할 것을 하나님과 우리 상호 간에 엄숙히 언약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언약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시기를 기도한다. 아멘, 할렐루야!

로잔 운동의 역사, 정신과 신학, 그리고 한국 교회

◎ 최형근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로잔운동의 역사적 배경

19세기 개신교 선교현장에서 협력은 중요한 문제였다. 선교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이들 중에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도 있었다. 그는 18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100년 후, 1910년 6월 14-23일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의 뉴칼리지에서 세계선교대회가 개최되었다.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가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신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기독교 3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불리는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생활과 사업(Life and Work), 그리고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운동이 이 대회를 기점으로 태동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10년에는 에큐메니칼 진영과 로잔 세계복음화위원회(LCWE), 세계복음주의연맹(WEA)으로 대표되는 복음주의 진영이 에딘버러 대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선교대회를 각각 에딘버러 뉴칼리지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에딘버러 대회를 기념한 이유는, 학생자원운동이 내걸었던 “이 세대 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 하자!”라는 슬로건과 1910년 에딘버러 대회의 슬로건이 동일했고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 의제도 연합과 일치보다는 세계복음화였기 때문이다. 즉 에딘버러 대회를 가능케 했던 핵심 동력은 18세기와 19세기 대각성 운동, 부흥운동, 학생자원운동과 초교파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세계복음화였다. 특히 1974년 로잔 세계복음화대회는 복음주의 선교운동이 전 세계로 약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74년, 복음주의자들이 스위스 로잔에 모인 이유와 그 배경은 무엇인가? 로잔 운동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1910년 에딘버러 대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에는 계몽주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성향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득세하면서 거의 모든 교단과 선교단체, 교육기관을 통제했다. 1921년에 조직된 국제선교협의회(IMC)도 복음적인 소리를 내기는 했으나 모더니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YMCA, YWCA, 학생자원운동(SVM), 세계학생기독교연맹(WSCF)도 복음적인 경향으로부터 멀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이 생겨나면서 1974년까지 복음주의 선교는 인적, 조직적, 재정적으로 성장했다. 신설된 EFMA는 새로운 학생 사역과 교파 선교 단체의 보호막이 되었고, 풀러신학교와 빌리그래함 전도협회 설립, 크리스채니티 투데이의 창간 등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선교를 도외시키고 세속적 의제로 함몰되어 가고 있던 시기에 복음주의 선교의 동력을 제공했다. 복음주의 진영의 결집하게 된 데는 1960년대 들어 “인간화”와 “세속화”로 대표되는 WCC 진영이 급진적 자유주의 신학의 성향을 띠면서부터이다. 1961년 WCC 뉴델리 회의에서는 IMC가 WCC의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관으로 통합되었는데, 이 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레슬리 뉴비긴의 의도와 달리 에큐메니칼 진영 내의 선교와 전도의 동력은 점점 약화되었다. 또한 제3세계가 서구 식민주의에서 독립하면서 반서구 성향을 띄고 외국 선교사를 배척하기 시작했다. 특히 로잔대회가 열리기 바로 직전인 1973년 방콕에서 열린 WCC의 선교와 전도위원회(CWME)가 주최한 대회에서는 서구 선교의 모라토리움(moratorium), 즉 해외에 선교사를 보낼 필요도 없고 선교사들도 현지에서 철수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복음주의 지도자인 빌리 그래함과 칼 헨리(당시 크리스채니티 투데이 편집인)는 서구 신학의 급진적인 변화를 염려하여 WCC와 대조되는 국제적 규모의 복음주의 진영을 규합하는 대회를 조직하여 교회의 복음화 과업을 수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66년 베를린에서 “하나의 종족, 하나의 복음, 하나의 과업”이라는 주제로 100개국 1,200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세계선교대회가 열렸다. 또 같은 해에 IFMA와 EFMA가 연합 후원하여 휘튼대학교에서 258개 이상의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이 파송한 938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세계선교대회가 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주의자들의 선교 역량을 결집하고 세계복음화의 과업을 완수하고자,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틀 등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주도하에 1974년 로잔대회가 소집되어 150개국에서 2,700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제1차 로잔대회는 복음주의 선교에 매우 중대한 결과들을 가져왔는데,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신학적 근간을 제공한 로잔 언약,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위원회(LCWE), 그리고 지상대위임령에 대한 “종족 중심의 해석”이 그것이다. 제1차 로잔대회 이후 설립된 로잔위원회는 1980년에 태국 파타야에서 세계복음화협의회를 개최했고, 각 지역과 국가들에서의 상

황화, 복음과 문화, 동질집단의 원리, 단순한 삶의 양식 등 소 협의회를 개최했다(<http://www.lausanne.org> Documents 부분 참조). 제2차 로잔대회는 1989년 마닐라에서 열렸다. 173개국에서 4,300여 명이 참가했는데, 오순절과와 은사주의자들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도 참석자 및 참관인으로 함께했다. 마닐라대회에서는 로잔 언약을 확고히 하는 마닐라 선언문(Manila Manifesto)과 함께 로잔의 비전을 담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자.”라는 슬로건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로잔운동은 1990년대 유럽 복음주의자들로부터 다소 활력과 지지를 잃었다. 2000



년대 들어 로잔운동은 다시 한 번 활력을 얻게 되었는데, 2004년 태국 파타야에서 로잔포럼을 개최하면서 새로운 리더십 팀을 구성했고 1,500명의 대회 참가자들이 32개의 로잔 문서(LOP)를 내놓았다. 이후, 로잔 리더십은 여러 번의 모임을 거쳐 2010년 10월 16-25일, WEA와 공동으로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로잔대회를 개최하고 대회공식문서인 케이프타운 서약을 내놓았다.

로잔운동의 정신과 신학: 온전한 복음, 온 교회, 온 세상

1974년 제1차 로잔대회의 공식문서인 로잔 언약에서 최초로 언급되었고, 제2차 마닐라 로잔대회에서 채택된 로잔운동의 정신이자 슬로건인 “온전한 복음, 온 교회, 온 세상”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 형성된 선교에 대한 이해를 촉구한다. 복음과 교회와 세상, 이 세 요소들은 본질과 그 본질에 근거하여 보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현장, 무대를 말한다. 이 세 단어들 앞에 온전한 혹은 온(holistic)이란 형용사를 붙인 것은 축소되고 왜곡된 복음, 세상에 대한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한 교회, 그리고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을 새롭게 갱신하고 화목케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로잔 케이프타운대회는 “온전한 복음, 온 교회, 온 세상”이라는 3개의 축을 근거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오늘날의 도전적 이슈들을 다루었다. 먼저, 온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깨어진 세계에서 화해의 복음을, 온 세상은 타종교와 타문화 그리고 남은 과제와 선교전략을, 온 교회는 교회의 순결함과 청렴함 그리고 교회의 협력과 일치와 문제들을 다룬다. 이런 의미에서 케이프타운 서약은 로잔운동 내에서 논의되어 온 선교신학이 통전적임을 재차 확증했다. 따라서 이 슬로건에는 풍부한 반향들과 명백한 의미, 호소가 담겨 있기에 그 깊이를 온전히 탐구하는 것은 중요한 신학적 작업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로잔운동이 산출한 주요문서들의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궁극적 규범성과 기독교론(Christology)을 중심으로 전개된 세계복음화이다. 로잔운동이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핵심은

로잔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을 역사로부터 분리된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신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다원적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불변하는 복음의 메시지이다. 로잔운동은 우리가 믿는 바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 권위가 성경에 있음을 확증한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은 복음, 즉 좋은 소식을 담고 있다. 로잔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을 역사로부터 분리된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신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이러한 특징은 케이프타운 서약에 잘 나타난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로잔 언약에 기초하여 성경의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제시하며 세상이 제기하는 의제들을 풀어간다. 즉 성경에 나타난 신학적 명제들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역사 속에 나타난 계시의 본질을 성경의 내러티브를 통해 읽어내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들의 기억과 소망을 형성하여 복음 증거의 내용과 삶의 방식을 지배한다. 오늘날 상대주의적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하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전파하며 삶에 적용하는 과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할 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절대적 요소이다.

로잔 언약이 주로 광범위한 신학적/교리적 전제들을 재확인했고, 마닐라 선언문이 1980년대의 상황에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려는 원리와 방법들을 제시했다면, 케이프타운 서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불변하는 복음에 대한 확고한 고백과 보다 광

1974년 로잔운동이 시작한 이래

한국 교회 복음주의 운동에

로잔 언약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그 영향은 매우 미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범위한 행동지침들을 통전적으로 제시하였다. 2부로 구성된 케이프타운 서약(“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와 “우리가 섬기는 세상을 위하여”)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름받고 그 선교의 무대인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인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과 행동지침을 담고 있다. 서약의 1부를 구성하는 10개 조항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를 삼위일체의 교리와 연결하며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규정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한 1항은 전문의 성격을 띠고 있고, 2항은 유일신 하나님의 본성과 교회의 궁극적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3-5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6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거대 서사(grand narrative)로 본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 인격, 행위를 계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래적 증거로서 기독교 세계관과 신학을 형성한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해

준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억과 소망을 형성하며 그들의 복음 증거의 내용을 지배한다. 1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7항은 세상을 창조신학적인 관점에서 기술하며 그동안 복음주의 진영에서 간과했던 세상과 문화에 대한 중요한 관점들을 기술한다. 8항은 복음에 관한 핵심적 주장들을, 9항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묘사한다. 1부의 마지막이자 결론인 10항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고 있으며 온 교회가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임을 확증한다. 1부는 사랑이라는 고백적 언어를 사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한 복음과 온 교회와 온 세상의 관계로 묘사한다.

6개 항으로 구성된 2부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사랑과 순종을 한데 묶는다.”로 시작하며, 1부의 고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고 행동할 것인가를 말한다. 케이프타운 대회에 틀인 복음과 세상과 교회를 중심으로 각각 2개의 주제들을 배열하고, 각각의 주제는

다시 4-7개의 이슈들(총 33개)을 다룬다. 또, 각 장은 주어진 주제들을 중심으로 복음과 세상과 교회를 총체적으로 다룬다. 2부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복음에서 교회, 세상에서의 복음 다시 세상, 교회의 순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에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적인 방식들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로잔 언약의 복음 전도의 우선성(primacy)에 대한 강조는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궁극성(ultimacy)으로 전환되었다. 즉 복음 전도가 우선이라는 순서적인 접근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복음 전도를 궁극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인간이 처한 근경과 필요에 따라 선교의 출발점을 달리 한다는 것이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통전적 선교 안에서 우리의 선포는 사회적 중요성을 갖고 우리의 사회참여는 복음전도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궁극성 중심의 해석을 제시한다.

2부 5-6항은 복음과 세상 사이의 언약백성인 교회가 복음의 빛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일치와 동반자 협력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성적 우상, 권력의 우상, 성공의 우상, 탐욕의 우상을 거부하고 겸손과 정직성과 단순한 삶의 방식을 회복하라는 5항의 예언자적 외침은 복음을 상실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을 철저히 질타하는 음성이다. 결론에서는 두 가지 중심 주제를 강조한다. 급진적 제자도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성장과 일치하는 십자가 중심의 화해이다. 즉, 제자도와 화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다. 서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하여 복음, 세상, 교회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1부의 고백과 2부의 행동에의 요청을 상보적으로 연결한다.

로잔운동이 한국 교회에 주는 교훈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주석과 해석)와 적용(삶)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 로잔운동이 주장하는 헌신은 단순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헌신이 아니라 믿는 바를 추구하는 제자도(discipleship)이다. 그러나 제자도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단지 개인적인 구원(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이해될 때, 그 본래의 의미는 축소된다. 이러한 성향이 복음주의 진영 내부에 깊숙이 침투되어 교회의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사회변혁)를 이문화 시키는 오류와 환원적 접근을 낳았다. 나아가 제자도의 상실과 왜곡된 이해는 만인 제사장직의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고, 창조세계의 청지기직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켰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선교를 파괴하고 교회를 세속적 지배문화에 종속시킨다. 이것이 바로 로잔운동이 오늘의 한국 교회에 던지는 중대한 메시지이다. 1974년 로잔운동이 시작한 이래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 운동에 로잔 언약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그 영향은 매우 미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통해 삶의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들과의 타협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성장을 추구하여 교회 자체의 DNA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음의 환원주의, 혼합주의는 한국 교회의 교파분열과 신앙의 사유화(privatization)를 초래했다. 한국 복음주의 운동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세상에 보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구원과 화해,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살아내는 제자도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확신한다.



최형근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이다. 하트스트림 선교사 멤버케어 센터 공동대표이며, 국제로잔위원회 신학위원(전, 국제로잔위원회 동아시아 총무)으로 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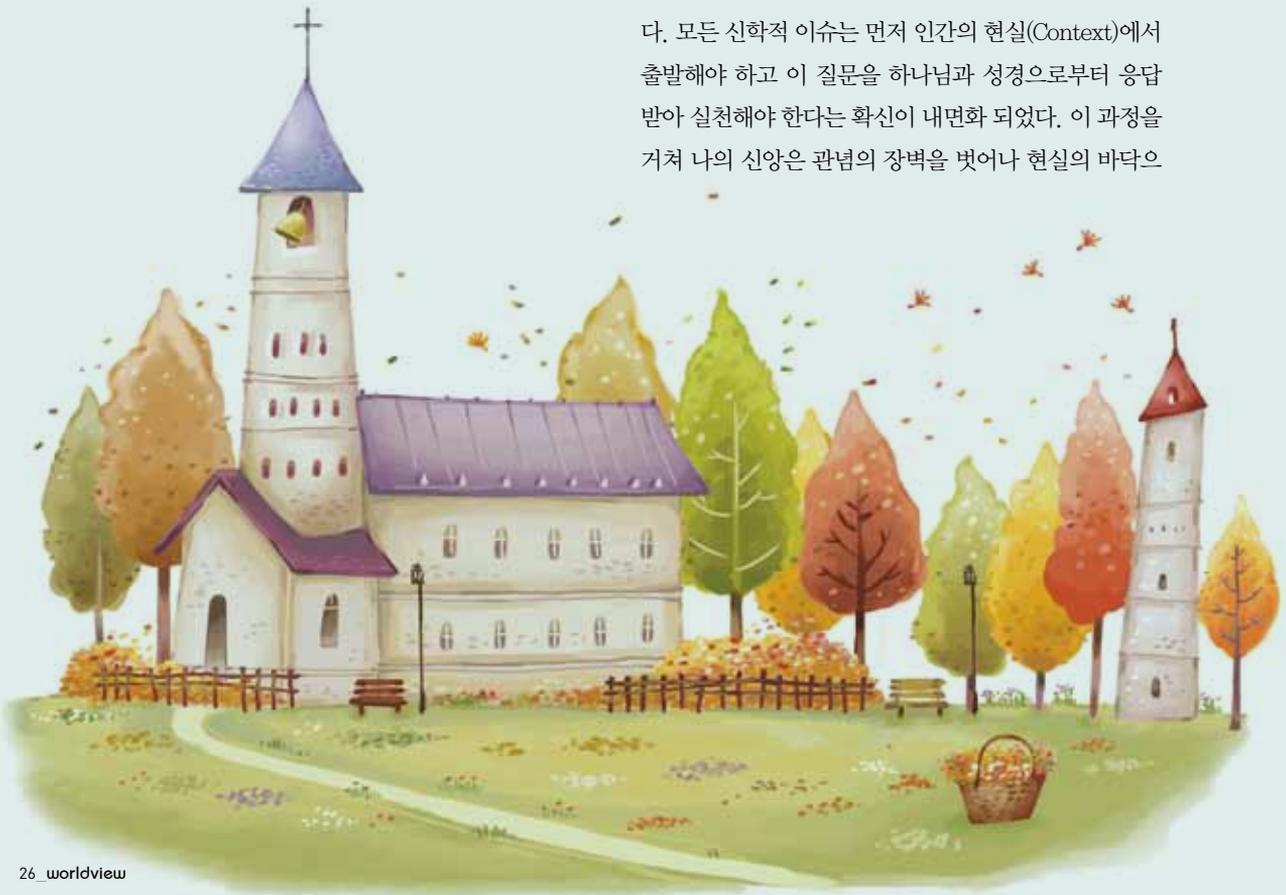
나의 목회와 로잔 언약

☉ 이문식 (광교산울교회 담임목사, 복음주의교회연합 공동대표, 한국인터서브선교회 이사장)

54년생인 나는 27세 되던 1980년에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신학생이었다. 25세까지만 해도 니체, 도스토예프스키, 키에르케고르 등의 책을 끼고 지독한 실존적 문제로 하나님과 씨름하던 나는 27세를 기점으로 역사적 문제를 놓고 신앙적, 신학적 고뇌를 시작했다. 보수교단에 속한 신학교에서 칼빈주의 개혁사상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성경신학적 통찰을 통합해 나가고 있던 나는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한반도와 남미 등 제3세계의 현실에 촉발된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역사적 성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선교학 석사 과정 중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성서해석학에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 후 김세운 박사가 지도하는 신약학 석사과정에서 총체적 성서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다. 철학과 역사학, 사회학을 통합한 해석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성경의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구속사적 성서해석과 통합하는 나름의 총체적 성경 신학을 수립하느라 나의 젊은 날은 고뇌와 열정으로 들떠 있었다.

이때부터 나는 ‘행동하는 신학(Doing Theology)’에 매료되었고 이것을 나의 평생의 목회 철학으로 받아들였다. 모든 신학적 이슈는 먼저 인간의 현실(Context)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 질문을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응답받아 실천해야 한다는 확신이 내면화 되었다. 이 과정을 거쳐 나의 신앙은 관념의 장벽을 벗어나 현실의 바닥



로 출애굽했고 나의 신학은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익어가기 시작했다.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성경해석학이 지나치게 사회학적 성서해석으로 귀결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하여 복음주의 진영의 제3세계 출신 신학자들의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때 만난 사람들이 사무엘 에스코바(Samuel Escobar), 올란도 코스타스(Orlando E. Costas), 르네 빠디아아(Rene Padilla) 등 이른바 로잔 운동의 급진적 제자도 그룹에 속한 학자들이었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하비 콘(Harvie M. Conn)이나 로저 그린웨이(Roger S. Greenway) 같은 선교 신학자들의 글도 이때 만났다. 물론 존 스토틀(John Stott)와 자크 엘룰(Jacques Ellul)의 책들은 기본적인 교과서 역할을 했다. 이때부터 나는 로잔 신학과 더 자주, 깊이 조우하게 되었고 로잔운동이 나의 목회와 선교 실천 속으로 깊이 스며들게 되었다.

강도사 시절인 1989년 나는 구로동에 교회를 개척했다. 구로희년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교회는 당시 동아시아 산업사회의 모순이 깊이 스며든 구로공단에서 하나님 나라의 희년을 선포하고 살아내려는 한 젊은 목회자의 꿈과 열정이 빚어낸 공동체였다. 이미 개척 전에 후배 청년들과 함께 야학과 노동자 탁아소를 가리봉동에 세우고 당시 공장 활동을 하던 대학생들과 함께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나는 독일 유학 대신 구로공단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나는 서울 외곽의 어느 교회 수요 집회에서 한 여자 선교사의 간증을 듣게 되었고 깊은 감동과 함께 삶의 방향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 군부독재와 수탈적 경제 구조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 소위 시혜적 참여를 하며 사회 선교운동의 주변부를 맴돌고 있던 나는 좀 더 중심부로 한 발자국 내딛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마치 다시스로 가려는 요나처럼 느껴졌고, 니느웨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나에게 구로공단은 군사적 억압과 수탈이 깊이 드리워진 니느웨였고, 어두움이 깃든 갈릴리 북부 납달리스 불론 땅이었다. 깊은 신앙적 감화와 감동 가운데 나는

구로공단 가리봉동 지역으로 집을 옮겼고, 당시 칠십 노모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다. 당시 봉제공장이 있던 4층 20평을 월세로 얻고 이만열 교수님이 써준 구로희년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바로 오늘의 희년선교회의 기초이다.

희년선교회는 로잔 정신을 가지고 대도시 선교(Urban Mission)를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주요 대상은 한국산업공단에 노동자로 들어온 제3세계 사람들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주로 터키와 서북 아프리카의 노동자들이 EU 노동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고, 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홍콩,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으로 이주, 불법체류 노동자가 되었다. 불법체류 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불법을 저질렀을 뿐이므로, ILO 가입 국가로서 이들의 인권이나 노동3권 등 나머지 부분은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불법체류라는 신분적 약점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다. 희년선교회는 이 제3세계 출신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시키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나그네를 선대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처음부터 로잔의 총체적 복음, 총체적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사역하였으며, 복음 전도와 사회정의를 총체적으로 구현하는 선교전략을 실행하였다. 특히 이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대안으로 사설 의료보험조합(희년의료공제회)을 설립하여 기독교적 인도주의를 실천하였다. 현재 희년의료공제회에는 2013년 말 기준 68개 국가, 누적회원 약 14,728명(실제 활동 회원 2,500명~3,000명 사이)으로 구성된 국제적 의료보험조합이다. 매주 무료진료를 통해 1차 진료를 하고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조합에 속한 협력병원에 보내어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 기독교 공동체가 각 민족별로 세워졌는데, 현재 총 7개의 민족 공동체(Ethnic Community,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CIS-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고려인/ 쿠르드-이

란, 이라크, 터키)가 매주 예배와 성경공부, 식탁공동체로 모이고 있다. 이 희년선교회를 통해 느낀 보람과 감동은 큰 수술을 받고 고국으로 귀환한 형제가 쓴 편지 한 구절이 대변한다. “목사님! 한국에 돈 벌려고 왔지만 돈보다 더 큰 것, 예수님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창립 20주년을 맞아 사역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1997년 산본 지역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다. 두 번째 교회의 목회 철학은 ‘샬롬 목회(Shalom Ministry)’였다. 희년선교회 사역과 3년 반의 남북나눔운동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가치는 바로 샬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로잔신학이 ‘균형잡힌 기독교(The Balanced Christianity)’에서 ‘총체적 기독교(The Wholistic Christianity)’로 발전한 것처럼 나의 목회 철학도 점차 총체적 목회(The Wholistic Ministry)’로 성숙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선교 개념이 통합된 목회를 지향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다스림)의 결과는 샬롬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샬롬 공동체(The Shalom Community)’이다. 온 세상이 이기심과 이념과 인종과 종파와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쟁과 테러와 전쟁으로 가득차 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대안적 공동체(The Alternative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대안은 한마디로 샬롬이다. 그래서 산울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샬롬을 추구하는 것을 첫 번째 전략으로 삼았다. 당시 군포시에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었다. 제일 먼저 군포경찰서를 창립하는 일에 참여했고, 나중에는 공동대표까지 맡았다. 지역 시민단체 운동가들과 교체하면서 산울교회가 어떻게 지역 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교육관을 개방하고 지역 시민단체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또 지하식당을 열어 지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매일 점심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하는 소위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였다. 이 두 사역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산울교회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공동체, 지역사회의 모든 현안에 열린 공동체, 지역 시민 사회와 깊은 연대성을 확보한 공동체로 각인되었다. 지역 시민사회는 대부분의 시민교육강좌와 세미나를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 진행하였고 세미나 중 식사 문제도 교회 식당에서 해결하였다. 이렇게 하여 점차 우리 교회는 지역 사회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여성민우회와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여 선교적 협업까지 하게 되었다. 특히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교회로 간 언약에 기초한 총체적 선교 개념을 가지고 사회선교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사회선교사는 군포여성민우회와 협력하여 한부모가정에 집을 제공하고 공동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룹홈 사업’을 전개하여 10여 가정에 주택을 제공하고 생활대책을 공동모색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한부모가정을 돕는 지역 NGO를 구성하게 되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성경의 명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울교회 권사들이 군포여성민우회의 대표가 되기도 하는 등,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여성 지도자로 건강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

대안공동체로서 산울교회는 단순히 지역사회에서의 샬롬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헌신하는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남북분단과 동서분열, 극단적인 이념대립으로 사회적 갈등과 증오가 증폭되는 남한사회에서 교회는 평화의 영성으로 갈라지고 분열된 것들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대안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산울교회는 창립 이후 지난 17년 동안 매년 6월을 ‘민족 화해의 달’로 선포하고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헌금은 물론 21일 동안 온 교인이 릴레이 금식기도(다니엘 세이레기도)를 하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의 영성을 함양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산울교회는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침몰 같은 극단적인 남북의 군사적 대립 상황 속에서도 원수 사랑의 아가페 영성을 가

지고 한결같이 금식기도하며 북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성숙한 평화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살림목회의 모든 정신과 신학의 뿌리는 로잔 운동이다. 74년 로잔 언약, 89년 마닐라 선언, 2010년 케이프타운서약으로 이어진 로잔 운동은 나의 목회에 풍부한 신학적 자양분이 되었다.

대안공동체로서 교회는 기존 교회에 또 다른 대안교회를 지향하게 한다. 건강한 교회는 신앙의 질적 성숙과 함께 양적인 성장도 자연스럽게 동반한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 성장은 인위적인 성장축진을 강조하거나 성장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교회 성장이라도 대형교회로의 성장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숫자 성장에 따라 요구되는 교회 공간의 확장과 주차장 확보가 무리한 현금 소요와 재정부실을 일으키고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자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현상은 대형교회로의 성장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이다. 구로교회교회를 통해 도시빈민목회와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경험하고, 군포산울교회를 통해 중산층 주거지역의 대안교회 모델을 모색하게 된 후 '교회를 분립하는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한 그루 나무보다 숲을 이루는 목회'라는 구호 아래 전교인이 월정 교회개척헌금을 작정하게 하고 이것을 기금으로 모두 3개의 교회를 분립·개척하였다.

분립교회를 세울 때마다 약 2억 원 정도의 개척기금을 지원하였고, 지원하는 교인들을 적극적으로 파송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회가 초기 과정을 비교적 수월하게 극복하고 자립하기 시작했다. 또 위치도 비교적 모교회에 가까이 있도록 함으로써 한 지역사회에 건강한 교회들이 서로 동역하기를 꿈꾸었다.



이문식 광교산울교회 담임목사, 총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일찍부터 복음주의 학생운동에 헌신하여 80년대에 '기독교문화운동연합', 90년대에는 '복음주의청년학생연합' 결성에 관여하였으며, 1991년 '복음과상황'을 창간하여 초대 편집주장과 발행인을 역임했다. 또 회년선교회, 화년의료공제회를 설립하여 외국인 노동자 선교사역에 지난 25년간 헌신하였고, 현재 '성서한국'과 '인터서브코리아' 이사장 및 '(사)한국민간교류협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통일을 넘어 평화로」(홍성사), 「이문식의 문화읽기(두란노)가 있다.

네 번째 분립은 담임목사인 내가 직접 하기로 결심하고 17년간 목회했던 산울교회를 2013년 사임, 수원시 광고신도시지역에 광교산울교회를 개척하였다. 이런 목회철학을 가지고 그동안 교회 분립 개척에 힘쓴 것은 로잔 정신에서 나타난 선교적 교회에 관한 개념 때문이었다. 로잔 언약은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 성취와 지상 계명(The Great Commandment) 수행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복음주의 선교신학을 천명하였는데, 이를 지역 목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은 교회 분립을 통한 지역 공동체적 선교 전략이다. 지역사회의 필요와 문제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구별됨을 드러내는 교회 개척 전략이 현재도 수원시 광고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다.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동두천 지역에서 미군 위안부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다가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조직신학교수로 부름 받아 귀국하게 되었던 하비 콘(Harvie M. Conn)은 총신대학교에서 행한 고별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간증하였다.

“나는 지난 2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를 속죄하는 차원에서 동두천에서 미군 매춘부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제 딱 한 사람 나 자신이 회개하며 떠난다. 복음 전도만으로는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 복음 전도와 함께 그들의 삶을 갱생시키는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 없이는 아무도 회심하지 않는다.”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던 나는 이 고별설교를 통해 선교의 총체성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의식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은 그 후 로잔 운동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목회와 선교를 통해서 이 문제의식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비&로리 블루먼 지음 | 656쪽 | 정가 35,000원

기독교적 고전교육

Teaching the Trivium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고전교육의 모델을 성경적인 시각에서 재구성한 책!

『기독교적 고전교육』은 서양의 고전교육이 왜 중요한가를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교육 지침서이다. 3학과(문법, 논리, 수사학)에 근거해 기독교 홈스쿨러를 위한 영적이고 철학적인 기반과 실제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교육 지침서이다. 이 책은 고전적 교육의 원리를 여러 고서들과 비교 분석해가며 성경적 토대 위에서 이론과 실재를 적절히 조화시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고전교육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이와 기독교 홈스쿨러들에겐 안성맞춤의 교재가 될 것이다.

추천의 글

공교육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사교육에 지터를 맡기지도 못하고 공공 잃는 부모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준다. 이 책은 특히 이론과 실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스쿨러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많은 지혜와 유익한 지침을 내려준다. 또한 공교육보다 홈스쿨링이 왜 좋은가를 입증해주는 좋은 연구 자료들을 담고 있으며, 공부의 능력과 학문적 성취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김희권 교수(숭실대 기독교학과)

21세기 첨단 시대, 왜 고전교육을 말하는가?

(Classical Education)



고전적 교육 입문
 크리스토퍼 A. 웨인 지음 | 정가 6,000원
 문법, 논리, 수사학으로 구성된 3학과 교육을 강조하던 공초의 독특한 요소들과 현재 고전적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나타난 이해적인 하일 성취를 강하게 증명하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고전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한담 D. 하트 지음 | 정가 9,000원
 교양 과목의 기초가 되는 고전교육의 가치와 감동 증명할 때, 고전교육의 역사와 고전교육으로 어떻게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지 소개하고 있다.



기독교 고전교육을 말한다
 더글라스 윌슨 외 지음 | 정가 15,000원
 현대적인 교육방법론과 고전교육의 프리비움(3학과)이 어떻게 다른지, 또 고전교육을 기독교 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전교육으로 홈스쿨하기
 더글라스 윌슨 외 지음 | 정가 7,000원
 고전교육의 성경적 이론과 문법, 논리, 수사학의 프리비움(3학과)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교육 과정과 방법론을 쉽게 풀어내고 있다.



토마스 제퍼슨의 위대한 교육
 윌리엄 B. 에드워드 지음 | 정가 10,000원
 역사를 위대한 리더들을 연구할 가치가 발견한 교육의 두가지 중심요소인 고전과 멘토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법을 소개한 책이다.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일상다반사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 읽기: 구속과 성경 읽기

공감의 하나님, 공감의 경제학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 읽기: 구속과 성경 읽기

☉ 전성민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



기독교 세계관의 고전이 된 월터스의 책 『창조-타락-구속』의 영문 제목은 “회복된 창조” 또는 “되찾은 창조”(Creation Regained)이다. 이 제목은 구속이 다른 아닌 창조를 되찾는 회복임을 암시한다. 실제로 월터스는 구속을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 구속은 회복, 즉 창조에다 어떤 것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되지 않은 창조 세계의 선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 회복은 창조 세계의 어떤 영역에 국한되기보다 창조 세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115쪽)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구원이 창조의 회복”이며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창조 세계의 회복”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121-127쪽). 구속과 창조가 이렇게 연결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미 선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왜곡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구속의 핵심 의미가 된다. 그리고 창조-타락-구속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기와 관련해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 하나님이 창조하시 않으신 것이 없고(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도 성경 읽기만큼이나 거룩한 것이며), 모든 것이 타락했으며(그래서 타락한 성경 읽기라는 표현도 가능하며), 구속의 영역 또한 온 창조 세계를 아우른다(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방향이 왜곡된 성경 읽기는 회복되어야 한다).

여기서 필자는 온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는 구속의 범위와 의미뿐 아니라 구속의 방법과 회복되어야 하는 참된 방향에도 주목하고 싶다. 요컨대, 기독교의 구속은 십자가를 통해서이다. 윌터스 또한 십자가와 창조-구속의 관계를 명시한다. “따라서 구속은 죄를 무효화하고 모든 곳에 미친 죄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을 통해 창조 세계의 선함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창조로 돌아가는데, 이는 오직 속죄만이 죄와 악을 그 뿌리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133쪽) 이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십자가의 구속이 성경 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자.

성경 읽기와 십자가의 구속

다른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 죽었다는 십자가 사건이 약자의 희생과 강자의 폭력을 조장하고 정당화해 왔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권면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폭력을 참고 살아가고 있으며 죄를 심판한다는 명분으로 증오를 정당화한 경우들도 적지 않은데, 이런 현상이 십자가에 대한 강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완전히 잘못된 비판은 아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여전히 기독교의 핵심이며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건이다. 문제는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고먼, 589쪽). 그렇다면 십자가 구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성경 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십자가의 구속은 권력지향적, 승리주의적 성경 읽기를 거부한다. 이런 찬송이 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에 주술적 효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피는 죽음의 비유적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그의 보혈은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을 그리스도가 대신 당해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죽음이 참된 승리라는 비밀을 알려준다. 죽음이 승리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살아남아야만 승리하고 성공한 것이라는 가치관의 굴레를 벗을 수 있다. 그것이 자기중심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하셨다(히 2:15-16). 마이클 고먼은 그의 책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Cruciformity*)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는 능력(권세, 힘)의 의미를 재정의함으로써 십자가를 남용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힘의 구조들을 무너뜨려 버린다.”(592쪽)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이 권력지향적, 승리주의적 성경 읽기를 거부하는 이유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을 아는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여리고의 승리(수 6장)에 도취되어 아이성의 패배(수 7장)와 세겜의 경고(수 24장, 23장도 참고)를 흘려버리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새 예루살렘의 “순 황금길”(계 22:21)에 눈이 멀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계 5:12). 실로 역사의 주인

되신 유대 지파의 사자(lion)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던 것이다(계 5:5-6). 성경을 읽을수록 삶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고지를 향해 올라가는 이유를 꾸역꾸역 찾아낸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구속에 토대한 바른 성경 읽기가 아니라 자아실현과 입신양명이라는 욕망의 성경 읽기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시험을 이기는 승리”인 이유는 이러한 높아지고자 하는 시험에 대해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높아지는 것이 참된 승리가 아님을 깨닫게 하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돕기 때문이다(마 4:8-9).

둘째, 십자가의 구속은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성경 읽기를 추구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다는 사실이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그 고통이 설령 징벌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그 심판에서 구해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히 13:12). 고전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고난을 정당하게 여기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당하는 자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591쪽).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었던 행동을 기준으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비유가 나온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신다(마 25:31-46).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 대부분은 벌 받을 염소가 아니라 복 받을 양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잘 대해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러나 정작 이 비유를 처음에 들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유에서 교훈이 아니라 위로를 얻었을 것이다. 그들은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할 위치가 아니라 돌봄을 받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고난 받는 사람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시, 함께함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다. 그래서 고전은 “약자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먼저 십자가를 본받는 사랑을 받아야” 하며(594쪽) “십자가를 본받는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위하여 자비와 정의를 추구한다.”고까지 말한다(616쪽).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세상에서 고난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들의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또한 고난 받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성경 읽기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복음의 총체성을 깨닫는 성경 읽기와 함께한다(복음 자체가 이미 총체적이기 때문에 “총체적 복음”이라는 표현보다는 “복음의 총체성”이 좀 더 나은 표현이다). 복음주의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 『하나님의 선교』에서 십자가가 세상이 처한 총체적 문제들의 해결책임을 설명한다. 해결되어야 하는 세상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다. “죄는 처벌받아야 하고 죄인들은 용서받아야 한다.”, “악은 물리쳐야 하고 인류는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사망은 파괴되어야 하고 생명과 불멸이 나타나야 한다.”, “원수들은 서로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화해되어야 한다.”, “피조물 자체는 회복되어야 하고 창조주와 화해되어야 한다.” 라이트는 십자가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한다. 성경을 편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악에 대해 승리하셨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참 생명의 길을 보이셨고, 여러 집단 사이의 막힌 담을 허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은 온 창조 세계를 썩어짐과 탄식에서 해방시킨다. 십자가 구속이 이렇게 총체적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는 성경 이야기를 읽을수록 온 창조 세계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반응하는 복음의 광대함에 빠져들어야 한다.

나가며

십자가는 개인적인 죄의 해결책으로 끝나지 않는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다는 선언이다. 십자가는 세상의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것들이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선언이다. 십자가는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수록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권력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나아가며, 번영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자기 세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활한 세계에 몸을 담그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적 성경 읽기의 결정판이다.



전성민 서울대학교에서 수학(B.Sc.)을, 캐나다 리젠틸칼리지에서 성경언어와 구약학(M.C.S., Th.M.)을, 영국 옥스포드대학교에서 구약학(D.Phil.)을 전공했다. 최근 역서로 『크리스토퍼 라이트, 성경의 핵심 난제들에 답하다』가 있으며 옥스포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연구서 *Ethics and Biblical Narrative*를 Oxford Theology and Religion Monographs 시리즈로 출판하였다. 현재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로 섬기며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 주해를 접목한 강의를 하고 있다.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

◎ 김태항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학회장, 명지대 교수)

공감의 하나님, 공감의 경제학

1.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의 시도 : '공감의 경제학'
2. 외로우신 하나님, 불통(不通)의 경제
3.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
4. '돈'의 경제와 '도'의 경제



우리는 앞서 두 번에 걸쳐 새로운 기독교 경제학의 패러다임으로 '공감의 경제학'을 탐색해 보자는 소박한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이제부터는 현대 경제(학)의 주요 관심 사안을 중심으로 분야별 주제를 탐구해보자.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큰 경제적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 문제이다. 할 일이 이토록 많은 세상인데 왜 일자리가 부족한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야 하는가?

가장 큰 고심거리, 일자리 부족

박근혜 정부의 "국민 행복을 위한 4대 전략 및 65개 과제"에는 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년 연장,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 등 일자리 관련 과제가 무려 9개나 제시되어 있다. 일자리(고용)를 관장하는 정부 조직으로 1963년 발족한 노동청이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된 지 30년만인 2010년에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도 일자리의 중요성을 대변해 준다. 2013년 우리나라 연평균 실업자 수는 80만 7,000명(2014년 7월 기준으로는 91만 2,000명)으로 2007년에 비해 2만 4,000명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37.7%는 20대 청년이었다. 즉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실업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3.1%를 차지했다. 100명 중 3명 정도이니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임금 근로자 1,820만 명 가운데 35.6%가 임시직이거나 일용직 근로자임을 고려해 보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¹⁾

국제노동기구(ILO)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4대 전략적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했다. 2013년 전 세계 실업자는 2억 150만 명으로 2007년에 비해 3,18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었다.²⁾ 그러니까 6년 동안 연평균 2.9%로 증가하여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의 4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러한 증가율은 같은 기간 세계 전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인 1.9%와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 1.4%보다 훨씬 높다. 인구가 증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취업자 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면서도 말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통계에 따르면, 2008~2012년 동안 세계 경제는 연평균 2.1% 성장했다. 즉 인구 증가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하다거나 인구 증가율보다 경제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은 잘못된 것이다.

1) 통계청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조사 기간이 포함된 4주 동안 주당 40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이상만 일을 했다면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근로자는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근로자)로 구분하는데, 2013년의 경우 72.6%가 임금 근로자였다.

2) ILO(2013),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13*, p.79.

왜 일자리가 부족한가?

인구 증가율보다 더 큰 폭으로 경제가 성장하는데 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일까? 무엇보다도 기술 진보에 의해 경제활동이 점점 더 노동력 절감형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고용구조 분석 결과에 의하면, 10억 원어치를 산출하기 위해 1995년에는 취업자가 14.8명 필요하였으나 2000년에는 10.9명, 2005년에는 8.7명, 2008년에는 8.2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³⁾ 즉 금액 기준으로 보면 같은 규모의 생산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가 13년 동안 45% 감소한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1995년 7.5명에서 2008년 3.0명으로 무려 60%가 감소하였다.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소비지출 규모가 당연히 증가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도 일자리 부족 현상의 중대한 이유이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거나 서로 기대하는 근로조건이나 노동력 수준이 맞지 않으면 일자리도 부족하고 일할 사람도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졸업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취업을 못하는 대학생들이 수도룩하지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도 수도룩하다. 종사자 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은 특히 고급 전문 인력과 청년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인력 지원 시행 계획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중소기업이 충원하지 못한 인력은 9만 명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수의 약 10%를 차지한다. 한국은행 경제 리뷰(2013. 12)에 의하면, 2013년 4월 현재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3.3%로 대기업의 1.1%의 3배 수준인 약 26만 명에 이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이 〈중소기업 기본법〉 외에 11개나 있으며, 특별히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일자리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정규직 일자리 보호가 강화될수록 기업의 신규 채용 부담이 커지게 되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존 취업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 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덕분에 상대적으로 불안정적인 일자리의 근로자(비정규직)나 신규 청년 취업 희망자에게는 그만큼 일자리 얻기가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2007년 7월부터 시행한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⁴⁾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 기간 2년 이후에는 정규직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고?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일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것도 이제는 민망해지지 않을까? 일하기도 어렵지만 일하지 않고 그저 먹고 놀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스스로 일한 결과로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고 남에게 신세지는 일이 지속될 수는 없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한 후 게으르고 “일을 만들지만 하는 자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거듭 권면한 것(살후 3:10-12)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 지속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에게 ‘일하기’는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의 문제이다. 즉 자기 양식을 축적해 두었다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적 필요 충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존재의 문제이다. 일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 규정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가 일하는 분으로 묘사된다(창 2:3).”⁵⁾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메시지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서’ 일하신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이다. 만일 노동(일)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라면 하나님은 왜 일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과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인간)의 일을 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고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 주어진

3)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취업계수이며 산출액은 2005년 불변가격 기준이다.

4)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 3개를 통칭한 것이다.

5) 도널드 헤이(1989), 『현대 경제학과 정치기 윤리』, 한국어판 번역 1996년, MP, p.83

시간에 처리하는 단발성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는 영속적이고 본질적인 일임을 일깨워준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요 5:19,21)이다. 하나님의 생명 창조와 타락한 인간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 외 어떤 존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일'이다. 또한 다른 어떤 존재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일이다. 따라서 그 일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몫이다. 청년퇴직도 없다. 하나님 스스로 보시기에 좋은 것 외에는 성과금도 없으리라. 우리가 일하지 않으려 하고 일하기도 힘든 것은 일을 배분하는 사람이나 일을 맡는 사람의 기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은 제한적이고 부족할 지라도 자신이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산재해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지 천사들이나 첩보원을 시키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직접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의 진수를 보여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우리도 스스로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을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은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기에 충분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자리를 주셨고(창 2:15), 해야 할 일을 적시해 주셨다(창 1:28). 하나님과 인간이 일하는 내용과 차원은 본질적으로 상이하지만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인간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판단자이시고 결정자이시지만 인간을 동역자로 참여시키신다. 감히 하나님 입장에 서서 보면, 우주 역사상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바로 인간 구원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한탄하셨을 때 자연이나 다른 동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거역한 장면은 없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한 것은 모두 인간이었다. 살아있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어 온 인간이 가장 큰 골칫거리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활동 무대에서 펼쳐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선택과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성경을 해석한다. 자기 스스로 뜻을 정하여 추진하는 마음을 뜻하는 이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인간이 가장 존엄하게 대접받으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면허증이자 하나님의 초대권이 아닌개! 다시 한 번 불경스러운 궁금증을 가져보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런 존엄성이나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 없는 하나님의 존재도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적어도 성경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은 부단히 인간을 찾으시고 기다리신다.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조바심이 역력하다. 이러한 발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불경죄에 해당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부단히 나아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과 방식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

대안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방식이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의 대안적인 기본 틀이 될 수 있을까?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술적인 측면보다 의식적(意識的)인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일자리 부족 현상을 진단하면서 소통과 공감의 부족을 인지하게 되었다. 청와대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놓고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라고 간청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공감하여 실행하기에는 몇 단계 건너야 할 관문이 있다.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할 만큼 외부 산업(시장) 여건이 긍정적인지,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사업 영역 가운데 어느 부문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그 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경쟁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부 자금 여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눈높이를 낮추어 적당한 일자리를 우선 찾도록 종용하기도 간단하지 않다. 직업과 일자리에 대한 개인적인 사정과 신념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개인을 바라보는 암묵적인 사회적 통념도 무시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된다면 대안은 마련될 수 있다. 이제까지처럼 일방적인 일자리 창출 요구나 고용 지원 정책만으로는 노동력 절감형 산업구조에 지속적으로 맞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세 가지 원칙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첫째, 일하는 주체는 개인이지만 일자

리 창출 문제는 사회적 문제임을 구성원 모두가 공감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정책은 정부만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21세기 들어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가 일자리 문제임을 염두에 둔다면 정부는 물론 개인과 기업, 사회단체 모두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일자리는 구직자와 구인 기업(조직) 그리고 공공 부문(중앙정부와 지자체)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 눈높이는 서로가 조정해야지 우월적인 협상력으로 강요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정보를 함께 만들어간다면 보다 선진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셋째, 공감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수히 실망하시면서도 다시 무수한 기회를 주셨다. 골칫덩어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듯이 일하는 사람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조직)도 현재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탄력적으로 가져야 한다. 이를테면 일자리도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도록 구직자와 구인 기업 모두 유연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정리해고를 하라는 얘기만이 아니다.

공감의 일자리 만들기

공감의 일자리는 먼저 기득권의 재조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쉽게 생각해 보자.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서 비슷한 역량을 나타내며 졸업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사람은 치열한 경쟁에서 다행히 원하는 기업에 취업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취업 준비 중인 상황을 설정해 보자. 수백 대 일의 취업 경쟁에서 비슷한 역량의 두 사람이 취업과 취업 준비의 위치에 있는 상황은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 취업한 근로자는 이제 사내 근로 복지(연봉, 근무 시간, 승진, 근로기간 등) 향상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취업 준비 중인 다른 사람은 근로 복지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취업이 우선적인 목표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모두 일을 해야 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어떻게 가능할까? 차별성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물론 기업으로서는 이 문턱이 더욱 높아지더라도 보다 유능한 인력을 채용해서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해 내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개별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공감해 나아가는 통로를 형성한다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수익성을 낮추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비정규직 보호 문제에서 기업과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을 상대적으로 줄이지 않으면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게으르지 않고 자기 양식을 먹으려는 구직자도 인식과 행동을 전환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수행해야 하는 존재임을 공감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 공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도 필연적이다. 도량 물과 개울물은 저절로 바다로 향하지 않는다. 물길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테면 불로소득 또는 근거 없는 지나친 성과금 지급 등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위화감을 철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님의 희년제도가 49년 동안의 빈부격차를 완충시키는 작용도 했던 것처럼, 자본주의의 사유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자본의 극단적인 우월적 지배는 규제되어야 한다.

교회가 용기를 내어 공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험적인 도전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년 구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는 경력 쌓기이다. 교인이 몇백 명인 교회만 하더라도 다양한 계층과 직업의 종사자들이 있다. 자신의 일터에 청년 한 사람에게라도 인턴 자리를 제공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은 무보수라라도 경력을 쌓고 일터 지역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교회들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가치 일자리나눔센터를 운영한다면 새로운 공감의 일자리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과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명지대와 하와이 열방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크리스천최고경영자과정(C-LAMP)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레슬리 뉴비긴의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

신경규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레슬리 뉴비긴(Leslie Newbigin)은 인도에서 20여 년 사역한 선교사이면서 은퇴 이후 24년간 열 다섯 권의 책과 120여 편의 글을 남긴 위대한 선교학자이기도 하다. 탁월한 에큐메니스트로도 유명한 그는 최근 그의 선교적 교회론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선교학계와 교회론에 있어서 집중적 조명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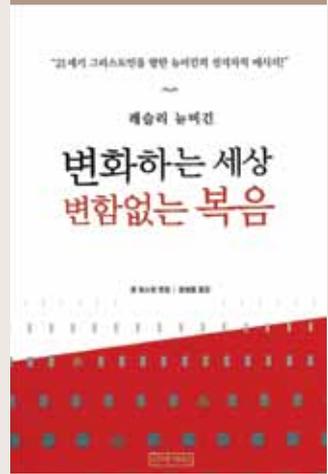
본 저서는 레슬리 뉴비긴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폴 웨스턴이 레슬리 뉴비긴의 『변화하는 세상에서 진리 발견하기』(1994년)라는 강연과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 숨쉬는 소망』(1995년)이라는 두 개의 강연을 하나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제1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제2부에서 지식의 문제, 권위, 창조, 구원, 종말 등의 교리를 서술한 후, 제 3부에서 기독교 신앙과 과학, 기독교 신앙과 세계 종교, 복음과 공공영역 등 과학과 타종교, 그리고 신앙의 개별성과 그에 대치되는 공공성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뉴비긴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신앙에 대해 삼위일체의 견지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

님은 그 본질적 속성이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기록을 강조하는 유대교나 심판을 강조하는 이슬람과 구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노와 사랑이라는 모순되는 하나님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됨으로써 해결되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심판마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 하였고, 사역 중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으며, 또한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인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들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고, 또한 아들이로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간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셨다. 예수는 아람어 '아멘'과 '아바'라는 단어를 통해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방식으로, 아이처럼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혁명적 발상이었다. 이를 통해 교회는 하늘에 있는 단일체나



초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로 존재하심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방식은 ‘사랑’으로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바르트, 몰트만과 유사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제자도에 있어서 첫째, 우리의 세계관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켰고, 둘째 함의는 우리가 기도와 묵상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를 알려 주었다. 즉,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 드리는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태양을 직접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18세기 유럽의 지성계는 기독교 신앙에 등을 돌리고 합리적 세속주의 신앙을 받아들여 인본주의적이면서도 진보적인 역사관을 채택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리고는 성경에 묘사된 예수가 역사적 예수를 나타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는데, 뉴비긴은 이것을 전형적인 자만심의 발로라고 말한다.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예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그가 살았던 1세기 이스라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콤란공동체 같은 금욕주의자 등이 살고 있던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공히 ‘랍비’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가 율법에 정통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음을 시사한다.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셨고, 사역의 시발점에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가 나타났다는 점이 이후에 정립된 삼위일체교리의 기초가 되었다. 예수의 가르침, 치유,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를 보여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 역사와 우주의 궁극적인 전환점을 이루셨다. 그는 우리 세계의 일부로 왔으나 하나님 그 자체로 오신 것이었다. 예수의 부활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닌 승리였다는 것을 보증하는 징표이자 맛보기이다. 이제 교회는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고 속죄하는 예수의 사역을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전

달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누구든지 예수의 속죄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제 저자는 성령 하나님으로 주제를 이어간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부'에는 이 세상의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저자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섭리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게 하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곧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에 임한 성령과 그의 사역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를 우리와 동시대인으로 만들어 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내면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의 역사적 사실성과 공적 사실성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다.

제2부 신앙과 교리 부분에서는 먼저 지식의 문제가 등장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각각 별개의 영역에 둔다. 그런데 현대 문화에서는 의심을 믿음보다 더 정직하게 보는 이상한 신념이 있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그는 믿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의심이 치열한 고뇌요, 확실한 지식을 추구하는 자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신앙이 먼저이고 의심은 그 다음이다. 물론 둘 다 필요하다. 그러나 의심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그것에 대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일종의 신념 체계인 '개연성 구조'라고 하는 뿌리 깊은 보수주의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저자는 의심을 더 가치있게 여기는 오늘날의 사고방식이 참으로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앎의 주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순전히 객관적인 지식이란 하나의 착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앎의 전통을 배우는 견습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언어에 구현되어 있는 기존의 관행과 행습 때문이다.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비판의 원칙'은 확실성에 못 미치는 것은 모두 지식이 아니라 믿음에 불과하다고 본다. 데이비드 흄은 데카르트가 만든 원칙을 대부분 무너뜨렸고, 임마누엘 칸트는 확실한 근거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실재를 알 수 없고 그것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니체 역시 그동안 유럽 문화가 추구해 온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면 필연적으로 더 이상 참이나 거짓, 선과 악에 관해 말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상대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의 믿음이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객관적 안목은 없다. 그것은 거대한 망상일 따름이다. 이러한 관찰자의 관점은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안목이고 이런 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또 다른 교만의 발로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없다. 우리의 인식구조는 삼중적인 앎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부차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것에 근거하여 핵심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수많은 부차적인 실마리들을 합하여 핵심적인 의미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여러 분리된 조각들 속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찾게 된다. 이 발견하려는 열정이 알고자 하는 욕구이다. 실재를 인식하는 것은 의미에 대한 감각, 자신의 발견을 공표하여 인정받는 일, 그리고 그 이후 진리는 또 다른 진리로 이끌리게 됨으로써 지식은 확산된다. 인간에게는 사물을 안다(wissen)는 것과 사람을 안다(kennen)는 두 가지 종류의 앎이 있다. 사물인 경우 대상에 대한 행위의 주체는 '나 자신'이다. 사람인 경우에는 대상이 곧 주체가 되며 나에게서는 완전한 통제권이 없다. 여기서는 이차적인 의미의 믿음을 사용한다. 신앙의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은 사랑의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인간을 조망할 때에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2세기에 걸친 근대적, 과학적인 세계관은 전형적인 환원주의의 모델이었다. 인간을 적절한 차원보다 낮은 논리적 차원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존재이다. 권위에는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외적 권위에는 성경, 전통, 이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말할 때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사도들의 메시지이며 성경 그 자체이다. 신앙적 이성인 교회의 판단에 따라 정경이 형성되었는데,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1,400년 동안 교회는 전통의 기반 위에 신앙을 지켜왔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 것이다.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보급되고 계몽주의 사고가 팽배해지면서 기독교 신학의 전통적 신앙은 이성적 논의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계몽주의의 비판적 사고가 성경해석에 도입됨으로써 자유주의적 역사비평학이 도입되었다. 성경비평학은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그 목적이 본문의 현대적 적용에 있으므로 선교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성경에 대한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은 성경의 축자무오와 객관적 확실성을 확보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성경이라는 객관성과 성경해석이라는 주관성의 문제는 성령에 의해 해결된다.

하나님의 세계 창조는 (1) 사물을 구별하고 나누는 것을 강조하고, (2) 창조된 세계의 자율성이 부여되었다

는 점, (3) 온 세계가 인류의 집으로 창조되었다는 점, (4) 인류 가족에게 특별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점, (5) 하나님께서 매일 스스로 창조하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이 창조 이후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이신론과 모든 우주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범신론이 극단적인 견해인데 기독교는 제3의 길을 택하고 있다: (1) 피조세계 속에 질서, 패턴 규칙이 있다. (2) 인간이 저야할 책임이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가 있다. (3)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 특히 이 책의 제10장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과학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합리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 사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만일 우주가 어떤 목적을 지닌다면 그 목적을 아는 존재가 그것을 밝혀 줘야만 그것을 알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본서는 수십 년 동안 선교 현장과 신앙적 순례 길을 걸으면서 저자가 신앙을 갖기 이전에 배운 서구적 사상과 사유를 체계적이면서도 호소력 있게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전 위에 그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는 복음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에큐메니스트로서 생의 마지막까지 교회의 일치를 견지하였다. 이 책은 그의 일생에 걸친 사상의 여정이 녹아있어 일반 성도들뿐 아니라 기독교대학이나 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개론의 교재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역작으로 평가하고 싶다.



신경규 서울대 경영학과(BBA)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MBA)를 수료했으며, 고려대 대학원과 부산대 대학원에서 각각 경영학과 경제학 박사과정을 과정을 수료했다. 장신대 및 고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도미하여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선교학박사)를 수료하였다. 귀국하여 현재까지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복음주의 신앙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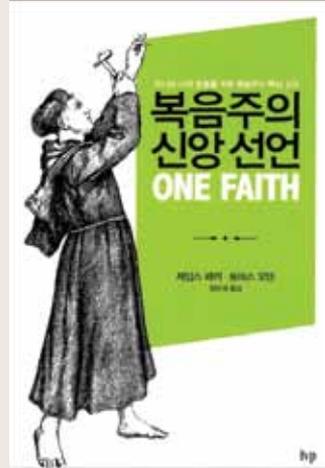
◎ 김승호 (한국성서대 신학부 교수)

오늘날 교파를 초월하여 복음주의(福音主義)라는 용어가 어렵지 않게 사용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교단들이 자신이 서있는 신학적 입장을 표명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복음주의라는 용어의 광의적 사용으로 인해 그 본래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있고, 그로 인한 혼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 복음주의 신학회, 복음주의 선교기관들이 복음주의의 정의와 정체성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찰하며, 복음주의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복음주의 운동에 대한 꾸준한 신학적, 역사적 평가 작업은 복음주의 운동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학문적인 평가와 연구가 뒷받침될 때 복음주의 운동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저변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복음주의와 관련된 또 한 권의 책 『복음주의 신앙 선언』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저자들은 제임스 패커(James Packer)와 토마스 오덴(Thomas Oden)이다. 패커는 마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 잔 스토틀(John Stott)와 함께 영국을 대표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오덴은 미국 연합감리교 소속 신학자로 드류대학(Drew University)에서 24년간 가르치며 특히 목회신학(pastoral theology) 분야에서 크나큰 업적을 남겼고 미국 연합감리교 내의 복음주의 운동인 Confessing Movement에서 큰 지도력을 발휘한 신학자였다.

저술 목적은 1950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복음주의 단체나 기관들이 내놓은 70가지의 복음주의 신앙선언문들을 주제별로 분석함으로써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저자들은 대륙과 국가를 초월하여 복음주의자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들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 선언문들을 통해 신앙적 차원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믿어온 고백들과, 실천적 차원에서 복음주의자들의 중점을 두는 부분이 무엇인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음으로 책을 저술했다. 저자들은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목적을 한 마디로 '신앙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독자들이 기독교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진리에 기반을 두어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진리가 요구하는 것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더 신실하게 순종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저자들이 오늘날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신앙고백과 실천을 구체적으로 표명해주고 있다고 보는 70가지의 선언문들은 다음과 같다. '95년 세계선교대회 선언(GCOWE, '95, 서울, 1995년), GCI: 우리가 믿는 것(Gospel Connection International: What We Believe, 1989년), GCM 신앙선언문(Great Commission Ministries Statement of Faith, 2001년), HCJB 세계 라디오: 우리가 믿는 것(HCJB World Radio: What We believe, 2002년), OMS 인터내셔널 신앙선언문(OMS International Statement of Faith, 2002년), 가든 시티 신앙고백(Garden City Confession of Faith, 1921년), 고든콘웰 신학교 신학기초(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Basis of Faith, 1996-2000년), 교도소 선교회 신앙 선언문(Prison Fellowship Ministries Statement of Faith, 2002년), 국제기독교학교 연합 신앙선언문(Network of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s Statement of Faith, 2002년), 국제 오순절 그리스도의 교회 신앙 선언문(International Pentecostal Church of Christ Statement of Faith, 2003년), 국제 유럽 그리스도인 선교회 신앙선언문(European Christian Missions International Statement of Faith, 2001년), 기독교 복음과 유대 민족에 관한 윌로우뱅크 선언(Willowbank Declaration on the Christian Gospel and the Jewish People, 1989년), 기독교 선교의 근본적 위기에 관한 프랑크푸르트 선언(Frankfurt Declaration on the Fundamental Crisis in Christian Missions, 1970년), 남미 선교회 교리 선언문(South America Mission Doctrinal Statement, 2001년), 남아시아 고등기독교학 연구소 신앙

고백문(South Asia Institute of Advanced Christian Studies Statements of Faith), 남아프리카 복음주의 신학교 신앙 선언문(Evangelical Seminary of Southern Africa Statement of Faith, 2003년), 단순한 생활 방식에 대한 복음주의 서약(An Evangelical Commitment to simple Life-Style, 1980년), 대위임령 선언(Great Commission Manifesto, 1989년), 듀페이지 선언: 성경적 충실성을 향한 부르심(DuPage Declaration: A Call to Biblical Fidelity, 1990년), 런던 바이블 칼리지 교리기초(London Bible College Doctrinal Basis, 2003년), 로잔언약(Lausanne Covenant, 1974년), 리젠트 대학교 교육철학(Regent University Philosophy of Education, 2003년), 마

닐라 선언문(Manila Manifesto, 제2차 세계복음화 국제대회/로잔II, 1989년), 메노나이트 신앙고백(A Mennonite Confession of Faith, 1990년), 미국 IVF 교리기초(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USA Doctrinal Basis(2003년), 미국 CCC 신앙 선언문(Campus Crusade for Christ Statement of Faith, 1998년), 미국 리벤젤 선교회 신앙선언문(Liebenzell Mission of USA Statement of Faith, 2003년), 미국 복음주의협회 신앙선언문(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Statement of Faith, 2000년), 미국 복음협회: 복음주의 선언(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An Evangelical Manifesto, 1996년, 2002년), 백투더바이블: 우리가 믿는 것(Back to the Bible: What We Believe, 1996-2003년), 베를린 선언(Berlin Statement, 1966년), 변화: 인간의 필요에 반응하는 교회(Transformation: The Church in Response to Human Need, 1983년),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복음주의 서약(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An Evangelical Commitment, 1982년), 복음주의신학대학(보-수-생느, 프랑스) 선언문(Profession de Foi), 복음주의신학교(루벵, 벨기에)신앙 선언문(Evangelische Theologische Faculteit Statement of Faith, 2003-2004년), 복음주의신학회 교리기초, 조항 III(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Doctrinal Basis, Article III, 2000년), 북미 오순절/은사주의교회 신앙선언문(Pentecostal/Charismatic Churches of North America, 1994년 개정 1998년, 2002년), 북미 인디언 선교회(NAIM)교리 선언문(North American Indian Ministries Doctrinal Statement, 2000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신앙 선언문(The 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Statement of Faith, 2003년), 선민 선교회 교리 선언문(Chosen People Ministries Doc-

trinal Statement, 2000년, 2003년), 성경의 무오성에 관한 시카고 선언(The Chicago Statement on Biblical Inerrancy, 1978년), 세계복음선교회 신앙선언문(World Gospel Mission Statement of Faith, 1997-2002년),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신앙 선언문(World Evangelical Alliance Statement of Faith, 2001년), 시카고 성명: 복음주의자들을 향한 호소(The Chicago Call: An Appeal to Evangelicals), 아랍세계선교회 교리 선언문(Arab World Ministries Doctrinal Statement),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신앙선언문(Azusa Pacific University Statement of Faith, 2002년), 암스테르담 선언, 2000: 21세기 복음 전도를 위한 헌장(Amsterdam Declaration, 2000: A Charter for Evangelism in the 21st Century, 2000년), 암스테르담 확인(Amsterdam Affirmation, 1983년), 에즈베리신학교 신앙선언문(Asbury Theological seminary Statement of Faith), 영국 IVF 교리기초(Universities and Colleges Christian Fellowship, UK, 2003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주의 축전(The Gospel of Jesus Christ: An Evangelical Celebration, 1999년), 예수님을 위한 유대인 신앙선언문(Jews for Jesus Statement of Faith, 2001년), 오순절학회 준칙(Society for Pentecostal Studies Bylaws, 1979년),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협의회 선언문(Deliver Us From Evil Consultation Statement,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위원회, 2000년), 월드비전 신앙선언문(World Vision Statement of Faith, 2003년), 유대 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증거(Christian Witness to the Jewish People, 세계복음화에 관한 협의회 파타야, 태국, 1980년), 이과수 선언(Iguassu Affirmation, 1999년), 일본성서신학교 교리 선언문(Japan Bible Seminary Doctrinal Statement),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살아있는 말씀” 공동서약

("Living World for a Dying World" Common Commitment, 1994년), 중국신학대학원 신앙선언문(Chin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tatement of Faith, 2002년), 초교파해회신교협의회(IFMA) 신앙고백(Interdenominational Foreign Mission Association Confession of Faith), 카리브복음주의협회 신앙선언문(Evangelical Association of the Caribbean Statement of Faith), 크리스챤리티 투데이 인터내셔널 신앙선언문(Christianity Today International Statement of Faith, 1994-2000년), 트리니티 국제대학교 신앙선언문(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 Statement of Faith, 2000-2003년), 틴데일대학교 신학교 신앙선언문(Tyndale University College & Seminary Statement of Faith, 1987년), 포커스 온 더 패밀리 신앙선언문(Focus on the Family Statement of Faith, 1987년), 풀러신학교 신앙선언문(Fuller Theological Seminary Statement of Faith, 1972년, 2003년), 풀러신학교: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것(Fuller Theological Seminary: What We Believe and Teach, 1983년, 1992년, 2003년), 활동하는 말씀 신앙 기초(World in Action Basis of Faith: 베스 사경회/Beth Convention), 휘튼칼리지 신앙선언문(Wheaton College Statement of Faith, 2003년).

저자들은 이들 70개 복음주의 기관과 단체들이 발표한 신앙선언문들에서 16가지 주제를 발췌하여 복음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신앙고백을 선언문 내용 그대로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1) 좋은 소

식: 복음의 핵심 2) 성서: 성경의 권위 3)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4)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인간의 삶: 죄로 타락한 창조세계 5) 예수 그리스도: 위격과 사역 6)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화해사역: 우리 죄를 위한 대속 7) 높임 받으신 주: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8)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한 칭의: 사면 9) 구원의 의미: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10) 성령을 보내심: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 11) 거룩한 삶: 거룩하게 하는 은혜 12)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됨: 모든 신자의 하나 됨 13) 교회: 하나님의 백성 14) 종교 다원주의와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15)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말과 행위의 통합 16) 종말: 마지막 날에 될 일.

저자들은 복음주의자들 간에 여전히 논쟁과 차이가 존재하지만(예: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 은사중단론자와 은사주의자들, 역기능적 하위교단으로서 비주류의 지위를 견딜 수 있는 부류와 그럴 수 없는 부류 등) 이들 차이점은 복음주의자들을 결속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즉 모두가 합의하는 신앙고백에 비추어볼 때 부차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이 이 배교(背教)의 시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청지기이자 하나님의 복음의 수호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음을 신앙선언문들을 통해 알 수 있음을 저자들은 고백하고 있다. 다양한 신학 사조들 중 하나인 복음주의가 무엇이며, 그들이 신앙적 차원에서 무엇을 고백하며, 실천적 차원에서 그들이 부여하는 우선순위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적극 권하고 싶다.



김승호 미국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Ph.D)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한국성서대학교 신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개혁주의선교신학회 교수이사, 한국로잔위원회 감사로 섬기고 있다. 대표적 학술논문으로는 「종교다원주의시대 한국복음주의교회 선교를 위한 종교신학개발」, 「복음주의적관점에서 본 이슬람신학에 대한 비평적고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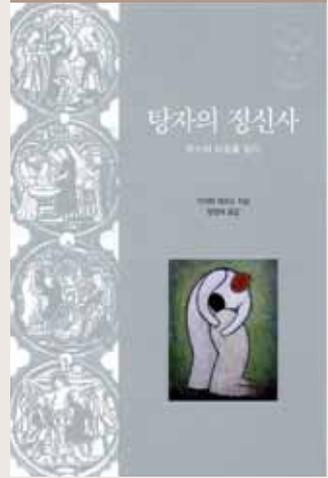
화폭에 담긴 성경이야기를 이야기하다

◎ 추태화 (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1.

책상에 작은 책 한 권이 놓여 있다. 단행본은 보통 신국판 크기로 두께도 좀 두툼한 편이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다. 변형 판형에 200페이지가 채 안 된다. 제목은 <탕자의 정신사>, 부제가 붙어 있다. “예수의 비유를 읽다” 미야타 미츠오가 저술하고, 양현혜가 번역한 책이다(홍성사, 2014).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돌아온 탕자”이다(누가복음 15장 11-32절). 성경은 신학이론을 논하는 학술서가 아니다. 또는 어떤 사건들을 단순히 전달해주는 이야기책도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사에 어떻게 간섭하셨고, 이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선별된 기록이다. 성경에는 가시적인 세속사가 인간의 흥망성쇠에 따라 등장하고 사라짐을 반복하여 역사의 주체인 듯 보인다. 그러나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세속사의 배후, 그 밑에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는 세속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어 있음을 보여준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딤후 3:16, 벧후 1:21).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죄로 인하여 창조 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상처와 허물 속에서 허덕이며 구원을 갈급해 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과 급기야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구원의 절정을 이루게 하시는 “큰일”이 인간의 말과 글로 성육신(incarnation)한 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가시적이며 유한한 인간의 도구로 표현된 것이며, 주님의 낮아지심과도 관련된다(빌 2:8).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가 세속적인 언어의 옷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것이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비유는 그런 면에서 더욱 해석하기 어렵다. 중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경은 문체론적 측면에서 문학적(literary)이지만(C. S. 루이스, L. 라이켄) 문학(literature)은 아니다. 이 말은 성경이 문학적 요소를 내포하고는 있지만, 어느 작가가 자의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문학 작품이 아니라는 말이다. 저자는 이런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혼신을 기울인다. ‘돌아온 탕자’ 비유를 형상화시킨 미술과 해석의 숲길을 걸으면서...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미술 속에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에 대한 도상학적 설명이며, 제2부는 ‘돌아온 탕자’가 문화 사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었고 그것을 통해 인간적 사유와 고뇌가 어떻게 표출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엮어져 있다. 그런데 저자가 여기에서 책을 끝냈다면 그동안 회자되어온 ‘돌아온 탕자’에 대한 또 하나의 첨언 외에 별다른 가치를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다. 책 마지막에 저자는 이 탕자 이야기가 왜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그 빛을 발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화룡점정의 한 수를 보여준다. 복음이 현대문명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처절하게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이기주의에 일침을 가하며 구원의 징표를 주시는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의미를 드러낸다. 이 책은 ‘돌아온 탕자’ 비유가 기독교 미술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으며 그동안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2.

1부는 한 편의 미술사이다.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기독교 미술 속에 등장하는지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1부는 그런 면에서 도상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돌아온 탕자’ 비유는 시대에 따라, 그 시대의 종교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작가에 따라 다르게 그려졌다. 중세, 종교개혁(뒤러, 보스), 바로크(렘브란트), 그리고 현대(로맹, 바를라흐, 샤갈 등)로 이어지면서 비유를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예술적 상상력의 옷을 입고 다채롭게 그려졌다. 중세시대는 교부들의 영향을 받아 탕자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이해했다. 교육을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그림을 활용했는데, 당시의 그림은 상상력보다는 해석학적 결과를 반영한 사례라 하겠다. 즉, 탕자를 위해 벌이는 잔치는 성만찬, 잔치에 죽임당하는 송아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자비하신 하나님, 탕자를 위한 좋은 옷은 세례, 반지는 신앙, 구두는 모범적인 삶을 각각 우의적으로 표현했다고 본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세기말적 불안과 종말론적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뒤러는 고독 가운데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회심을 표현했고, 보스는 독특한 여행자를 중심으로 두었는데 이는 당시 네덜란드에서 이단으로 박해를 받던 카타리파를 연관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의 빌미를 제공한다. 빛과 어둠, 원근법을 독창적으로 발휘한 렘브란트의 탕자 이야기에는 내면의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최고의 정신화에 의해 렘브란트는 은혜를 표현하는 것에 성공하고 있다.”(51쪽).

현대에 와서 돌아온 탕자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다. 로망은 시대의 혼란 속에서 절규하는 인간을, 샤갈은 동화적이며 몽환적 상상력을 통해 행복한 에텐동산 같았던 시절을, 바를라흐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탕자를 조각함으로써 구원자 예수와 재회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선교를 통해 동양으로 건너와 그곳에서 독자적인 형상을 띠게 된다. 중국 전지 미술에서 하기는 중국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마치 연인처럼 서로 포옹하는 모습으로 표현함으로써 복음의 토착화를 엿보게 하였다. 일본 작가 소이치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은 탕자 그림으로 감상자 스스로 심층적 차원을 체험하도록 여지를 남겨주었다.

3.

2부는 ‘돌아온 탕자’ 비유가 문학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었는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자는 이것을 정신사라고 명명한다. 비유는 오픈 스토리로 특정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비유를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자는 “예수의 비유에서 특정한 신조나 신학 명제를 따라 그 의미를 임의로 추출하는 것은 비유의 생명력을 파괴하는 일”이라며(101쪽) 주의를 촉구한다. 비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으며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비유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현실, 즉 생활 속에 들어가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이해하도록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만하고 자고한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숨기는 장치이다.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비유의 진정한 속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비유는 의외성으로 가득하여,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실존적 가능성을 깨닫게” 하고,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불가능한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한다(102쪽).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관점은 유효하다. 그리하여 수많은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비유가 이야기되는 곳, 거기에서 예수의 인격과의 만남이 생겨나고, 이 만남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건이 되는 것... 이러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직면하고, 그 은혜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도록 부름 받고 있는 것”이다(121쪽).

초대교회에서 중세 시대까지 탕자 비유는 다분히 신학적으로 이해되었다. 탕자는 이방인(또는 그리스도인), 큰 아들은 유대인, 아버지는 구원의 하나님, 탕자의 귀환은 회심 등으로 회화에서와 같이 수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회심(탕자의 돌아옴)과 이신칭의(아버지의 환대)의 모습에 비유되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급격히 주관적 자아의지와 결합되었다. 지드, 릴케, 카프카와 같은 작가들에 의해 탕자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모험적 인생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형으로 그려졌다. 그들에게 탕자는 죄인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불안과 부조리를 누구보다 처절하게 느끼며 진실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방랑의 길을 떠나 고뇌하는 실존자이다. 바로 현대인의 초상, 실존자들의 자아상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자아중심적 세계관의 맹아는 이미 종교개혁 시대부터 싹터왔다.

4.

미술과 문학을 통해 돌아온 탕자 비유에 말을 건 저자는 그동안 숨겨온 비장의 그림을 펼쳐준다. 예수께서 그림언어로 백성들에게 전하신 이야기는 그 시대와 문화에 갇힌 일회성 폐쇄 구조가 아니라, 지금도 생생한 육성으로 들어야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내면에서 펄떡펄떡 뛰는 심장 고동 소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준다. 둘째 아들처럼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향해 모험을 떠나거나 갑갑한 아버지의 관습과 맹목적 가부장적 억압에서 자유 혹은 해방을 추구하던 인류는 가능성을 갖고 집을 나갔지만 오히려 불모지를 만났고, 자기 앞의 세상을 불모지로 만들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소외당한 채 절규했고, 큰 아들은 큰 아들로 동생을 부러워하면서도 집을 나서지도 못하고 불만이 가득한 채 아버지 집에서 자아를 상실해가고 있었다.

이제 반전이 등장한다. 둘째가 돌아오는 과정은 아버지와 그 집에 대한 원초적 기억을 새롭게 한다. 아버지의 이미지도 더 이상 억압의 독재자가 아니라 자상한 아버지, 나아가 피 흘리기까지 자식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진다. 인류는 이제 하나님께로 서둘러 귀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험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스스로를 죽이는 문명 파괴의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저자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현대인, 현대문명, 인간 실존의 연관성을 발견하며 회복을 촉구한다. 나아가 자신의 나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극단적 일레라고 지적한다.

이로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저자의 성찰을 통해 그 지평이 다시금 열리고 있다. 미술사, 신학, 성경해석, 문학, 철학, 정신분석, 문화사 등이 융합된 인문학적 사유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다 폭넓은 의미의 세계로 초대하며, 독자로 하여금 열린 눈, 열린 마음을 갖게 한다. 그동안의 고답적 해석에 갇힌 비유, 신학적 독단에 묻힌 비유, 시대적 함의를 무시한 비유가 아니라 인간 실존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 비유를 경청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는 인간의 걸음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인간을 향해 달려오는 하나님의 걸음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161쪽)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을 공부했다(DR. PHIL.).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antelao@hanmail.net)

가정영역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실천가이드북

지난 2012년부터 자발적불편운동을 펼쳐 온 (사)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을 발간했다. '자발적 불편'은 스스로 편리를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여 조금 불편하게 사는 삶이며 이웃과 악자를 위해 나눔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자발적 불편을 실천하자는 기윤실의 자발적불편운동은 편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십자가 정신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한다.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은 집중적으로 실천할 행동 30가지를 선정해 자발적불편운동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그중 가정영역에서 실천가능한 일들을 소개한다.



1. 가장 쉬운 환경보호, 장바구니 사용

요즘 우리의 생활은 다양한 일회용품들 덕분에 아주 편리하다. 이러한 일회용품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비닐봉지이다. 우리나라의 비닐봉지 사용량은 1년에 150~200억 장 정도이고, 이를 만들고 버리는데 1,200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게다가 한번 사용한 비닐봉지는 재활용도 어렵고 썩는데 무려 120~500년이 걸린다. 또한 자연분해가 되었다 해도 토양이나 수자원을 오염시킨다고 한다. 이토록 해로운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 각자가 속한 가정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도록 자발적 불편을 감수하자.

2. 모두가 행복한 결혼식 준비하기

우리나라의 보여주기식 결혼문화로 인해 결혼시장은 불황을 모르는 산업으로 전락했고, 이로부터 불필요한 낭비가 속출하고 있다. 행복한 결혼식이란 신랑신부 당사자와 가족들은 물론 초대받는 하객들의 형편까지 고려하여 모두가 부담 없이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결혼식과 주거 공간, 신

혼여행 등 규격화된 결혼문화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내 형편에 맞게 나만의 결혼을 고민하여 독특하고 새롭게 준비해보면 어떨까? 이를 위해서는 두 집안의 상황과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고 뜻을 정한 다음, 서로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결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깊이 나눠야 한다. 이러한 과정 중 더러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기도 하겠지만, 이는 모두가 행복한 결혼을 위해 감수해야 할 자발적 불편이다.

3. 남성들의 '엄마 역할' 부담이 절실하다!

집안일은 거기에 들이는 수고와 에너지에 비해 티가 잘 나지 않는다. 음식 준비만 해도 영양을 따져 식단을 짜고 차려야 하는데, 먹는 데는 고작 10~20분이고 이후에는 설거지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야 한다. 빨래하려면 빨랫감을 분류하고, 빨고, 널고, 마르면 걸어서 개야 한다. 또 청소기 돌리면서 구석구석 먼지 제거하기, 휴지통 비우기, 재활용 쓰레기 분류하여 버리기, 식수 채우기 등 자잘하고 귀찮은 일들이 정말 많다. 이런 집안일들은 안 하면 티가 확 나지만 200%를 한다 해도 그 차이를 잘 모를 일들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집안일은 자연

스럽게 아내의 몫이 되곤 한다. 가정에서 아내가 짐을 나눠질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 아내도 남자들처럼 다양한 활동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야 한다. 남편은 마땅히 집안일을 감당하여 가정에서 '엄마 역할'을 나눠야 할 것이다.

4. 당신의 소비, 안녕하십니까?

기존 소비자들이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선택의 잣대로 삼았다면, 윤리적 소비자들은 환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생각하여 그 제품 안에 담긴 가치(윤리)를 읽는 소비자들이다. 안녕한 소비를 위해서는 한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연이 훼손되고 동물들이 희생당하며 세계의 곳곳에서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평소에 최소한의 소비만 하여 절약하는 습관을 갖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실천하도록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소비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자연과 동물, 사람을 기억하여 안녕한 소비에 힘쓰자.

5. 미래를 위한 물품 나눔

요즘 알뜰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동네마다 나눔 장터가 들어오고 있다. 대형 서점들이 앞다투어 인터넷 헌책방을 개설하고, 다양한 빈티지 숍들이 생겨나면서 마니아층도 많아졌다. 중고물품을 생각할 때 꺼려지는 것은 단지 편견일 뿐이다. 하나의 물품에 따르는 원재료 추출,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이 뒤따르게 된다. 쉽게 사서 쓰고 버리는 일을 줄여야 한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 중고물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아 쓰지 않는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6. 물 절약 원칙 3가지 : 받아서! 모아서! 끓여서!

당연히 물을 절약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일상생활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다. 양치 컵을 사용하고 대야나 세면대에 물을 받아 세수한다.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설거지나 빨랫감은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자. 정수기를 사용하면 많은 물과 전기가 들기 때문에 끓여먹는 것이 좋다. 물을 끓여 먹으면 물을 아낄 수 있고, 취향에 따라 맛있는 차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변기에 벽돌을 넣는 방법이나 절약형 샤워기 설치, 수도꼭지나 배관 점검 등의 방법들이 있다.

+plus

가정에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1. 음식물 쓰레기 먹는 지렁이 키우기
2. 분리수거 잘하기
3. 정리할 때 수납용품을 구매하기보다 택배상자 재활용하기
4. 세탁/주방세제 사용량 줄이고 친환경 제품으로 변경하기
5. TV 시청시간 줄이기
6. 시사잡지 구독하기
7. 아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8. 일주일에 하루는 온 식구가 한 방에서 자기
9. 가족들과 집 주변에 텃밭 가꾸기
10. 부부간, 가족 상호간에 존댓말 쓰기
11. 이웃과 알아가기. 이웃돕기
12. 중간소음 없애기
13. 읽지 않는 책을 정리해서 중고서점에 판매하거나 교회에 기증하기
14.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정리해서 제3세계 또는 주변 이웃에게 보내기
15. 제3세계 아이를 입양해서 후원하기
16. 정기적으로 정리·정돈하여 필요한 물품과 과소비 점검하기
17. 너무 큰집보다는 가족 구성원에 맞는 집 구하기

※기윤실에서 발행한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을 요약하였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윤실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cemk.org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4년 8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700,000	인건비	일반급여	3,400,000
	임원회비	570,000		기타급여	891,500
	일반회비	4,655,000		소계	4,291,500
	기관후원금	3,9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기타후원금	0		사무실관리비	434,400
	월보구독료	662,500		통신비	386,970
	CTC후원금	370,000		우편료	60,140
	사무실후원금	500,000		소모품비	58,240
	기타	0		비품	115,620
				식비	366,550
		복리후생비		899,491	
		회의비		0	
		회계용역비		220,000	
		기타	550,700		
		소계	3,642,111		
			연구지원비	도서구입비	0
				CTC후원금	299,175
				소계	318,625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000,000
				발송비	617,450
				합본인쇄비	223,960
				소계	2,841,410
	소계	11,357,500			
기타수입	이자수입	0	기타	세금	26,220
	기타수입	340,510		기타	0
	소계	340,510		소계	26,22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술지인쇄비	0
	학회자료집판매	357,500		학술지발송비	0
	학술지심사비	280,000		학술지심사료	167,500
	소계	737,500		소계	167,500
당월 수입액		12,435,510	당월 지출액		11,267,916
전월 이월액		26,892,636	차월 이월액		28,060,230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4년 8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1,550,000	인건비	직원급여	1,600,000
				기타급여	0
				소계	1,600,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편집비	300,000
		디자인비		990,000	
		인쇄비		2,069,540	
	소계	1,550,000	소계	3,519,54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0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75,000
	사무실후원금	250,000		복리후생비	620,740
	국고환급	255,380		회계용역비	110,000
	기타수입	213,990		식비	24,000
				회의비	4,800
				소계	1,034,540
				기타지출	세금
		기타	10,100		
		소계	246,270		
	소계	2,719,37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일반등록	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행사준비	370,160
	미디어기타	0		홈페이지제작비(2차)	2,640,000
				영상작업비	1,500,000
				소계	4,510,160
		소계		0	
당월 수입액		4,269,370	당월 지출액		10,910,510
전월 이월액		37,034,385	차월 이월액		30,393,245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8월 31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가월현, 구재형, 권기웅, 김경현, 김고은, 김동찬, 김민지, 김성욱, 김수경, 김영주, 김은호, 김찬호,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상희, 박준현, 박지만, 생명의강, 엄지은, 영음사, 유성욱, 이명준, 정세열, 정필규,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원길, 최희정, 하태실, 한채승, 함께하는교회, 황귀희 5천 강은주, 구성덕,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성윤, 김성찬, 김은경, 김정명, 김정식, 김정원, 김정준, 김제우, 김지수, 김철수, 김태윤, 김항아, 김해창, 노승욱, 노주하, 박광재, 박승룡, 박천규,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사섭, 신기혁, 신찬웅, 심정하, 양혜영, 우수민, 유은자, 유충열, 윤경숙,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영홍, 이윤희, 이인수, 이종혁, 이향숙, 임선제, 임춘택, 임형준, 임효숙, 장현일, 전광학, 전정진, 전충국, 정법채, 정봉현,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7천 김경휘 7천5백 고상섭, 김영숙, 김은민, 김효태, 민수진, 박대희, 박현빈, 방선기, 영암교회, 이병주, 이상훈, 이은순, 이주희, 전영식, 정원길, 정찬주, 진영규 1만 강승모, 강연정, 강은정, 강효식, 고선옥, 고연경, 고재호, 곽정인,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길원평,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고은, 김광순,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동준, 김막미, 김미혜, 김범식, 김보경, 김봉래, 김상범, 김선일, 김성경, 김성민, 김성은, 김성인, 김세령, 김세완, 김세준, 김소라, 김수홍, 김승남, 김승호, 김양호, 김영옥, 김영란, 김영호, 김요한, 김용서, 김우신, 김원호,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은혜, 김은혜, 김재정, 김정보, 김정일, 김정진, 김정호, 김종국, 김종훈, 김진성, 김진아, 김편임, 김 혁, 김형길, 김홍섭, 김홍제, 김효숙, 나운숙, 남서희,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박강국, 박경원, 박기연, 박능안, 박동현, 박두서, 박두한, 박상균, 박상호, 박성인,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한배, 박해일, 박현경, 박혜경, 박희주, 배세원, 배지연, 백경은, 백현준,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희진, 성광원, 성명순, 소중화, 손현탁, 송종철, 송철호, 신경규, 신동민, 신상형, 신성자, 신진선, 신현정, 신현주, 신형근, 신호기, 신효영, 안병열, 안 석, 안영혁, 안용준, 양행모, 오경옥, 오성호, 오지순, 옥재호, 유건호, 유경상, 유동준, 유상원, 유영준, 유은희, 유지황, 유창은, 유해무, 유화원, 유희진, 유상현, 윤찬석, 이갑두, 이 강, 이경숙, 이계심, 이권철, 이규현, 이기훈,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상규, 이상무, 이상수, 이상환, 이성수, 이승엽, 이시영, 이연구, 이연의, 이요한, 이용규, 이원배,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은주,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현, 이종국, 이준성, 이지숙, 이지연, 이진영, 이학성, 이해리, 이호선, 이환일, 이희진, 임동진, 임수연, 임 영, 임일택, 장승재, 장영창, 장옥경, 장유진,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태준, 전동일, 전명희, 전성규, 전장원, 정경식, 정동섭, 정상록, 정세준,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정숙, 정진우, 정현규, 정희원, 제양규, 조미연, 조백형, 조승희, 조용현, 조은향, 조재천, 조주영, 조현용, 조혜경, 조혜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상열, 최세진, 최영수, 최윤영, 최진우, 최진호, 최한빈, 최호영, 추진연, 태영숙, 하성만, 하진호, 한인관, 한정호, 한진영, 한혜실, 한화진, 허찬영, 허 현, 현승건, 홍선호, 홍세기, 홍정식, 홍준호, 황기철, 황도웅, 황세환, 황의서, 황대연, 황혜수,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김승택, 김효순, 유익신, 정상섭, 최동원 2만 강태훈, 강용란, 김경화, 김경희, 김규옥, 김세광, 김용서, 김은정, 김인숙, 김정호, 노경순, 노용환, 박시운, 배성민, 백은미, 변우진, 심인옥, 오한나, 우시정, 이 건, 이다운, 이덕영, 이명희, 이인아, 전종화, 정문선, 조창근 2만5천 문석운 3만 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윤정, 김지현,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변희자, 서성록, 오익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임지연, 임희옥, 장수영, 최용준, 추태화, 함부영, 황정진 4만 김은우, 배은경, 장재열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박문식, 서진희, 손봉호,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최혜경, 한윤식, 현은자 7만 서승학 8만 권경아 10만 김원수, 김의원, 박상은, 송인규, 양인평, 윤완철, 전광식, 최태연 12만 이경직, 태화복지재단, 현지식 21만 정영록 50만 김승욱

계 7,407,500원

기관후원

5만개봉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새길침례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침빛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안약교회, 열린교회, 예심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20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100만 새로문교회

계 3,900,000원

『월드뷰』는 후원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할 수 있도록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한 가족

아파트 10층에 사는 어떤 집 식구 다섯이 한꺼번에 창밖으로 뛰어내렸는데
신기하게도 땅 바닥에는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장인 남편은 **제비족**이라 날아가버리고
그 아내는 **바람이 나서** 날아가버리고
맏딸은 **날나라**라서 날아가버리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라 비행해 버렸고
막내딸은 **덜 떨어져서**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학회] 제31회 기독교학문연구회 기독교학문학회

기독교학문연구회가 제31회 기독교학문학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학자의 삶 속의 선교적 만남”입니다. 기독교학문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4.11.8(토)
- 장소 총신대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3동 소재)
- 문의 gihakyun@daum.net / 02-3272-4967 (학회)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기독교 세계관 토크콘서트] “종교개혁과 오늘”

종교개혁을 돌아봅니다. 준비되고 있는 토크콘서트.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토크 이은선(안양대 교수), 추태화(교육본부장, 안양대 교수)
- 참가비 5,000원
- 일시 2014.10.23(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100주년기념교회 교육관 (합정역 7번출구 뒤로 돌아 100M직진)
- 문의 info@worldview.or.kr / 02-754-8004 (김고운 간사)
- ※ 교육관입니다. 주차가 어려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청년들을 위한 토크콘서트]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 토크 신국원(총신대 교수), 양희송(청어람 아카데미 대표)
- 일시 2014.10.31(금) 오후 7시
- 장소 삼일교회 C관 2층(4호선 숙대입구역 10번출구에서 골다 리 지나 오른쪽 맞은편)
- 문의 info@worldview.or.kr / 02-754-8004
- ※ 복있는사람(출판사)과 함께 합니다.
- ※ 10월 기독 대학원생 모임과 겸하여 실시합니다.

[학회지] <신앙과 학문> 19권 4호 투고접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신앙과 학문>이 2014년 마지막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문에 관심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권 4호 발행일 12월 31일

- 편집위원장 메일 faith.scholarship@gmail.com
- 문의 02-3272-4967 (학회)

사무국 소식

[VIEW 간사연수]

신효영 대표간사가 VIEW 연수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각 처에서 도와주시고 후원해주신 섬김의 손길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고]

지난 9월 13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준현 교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간 동역해주신 박준현 교수님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부고]

지난 9월 4일, 본지 발행인 김승욱 교수님(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의 빙모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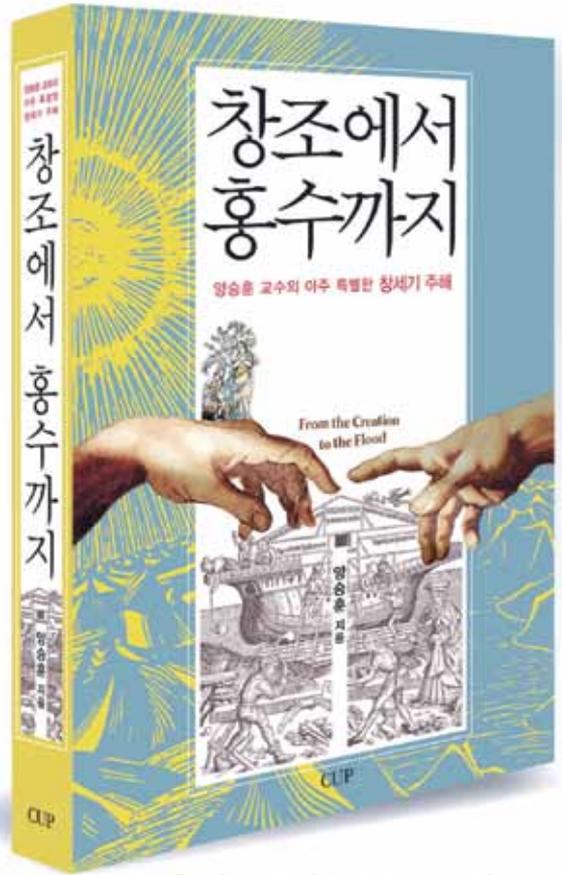
**양승훈 교수의
아주 특별한 창세기 주해**

**창세기에서 경이로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

**과학과 성경을 넘나들며
창세기를 깊이있고 흥미진진하게 풀어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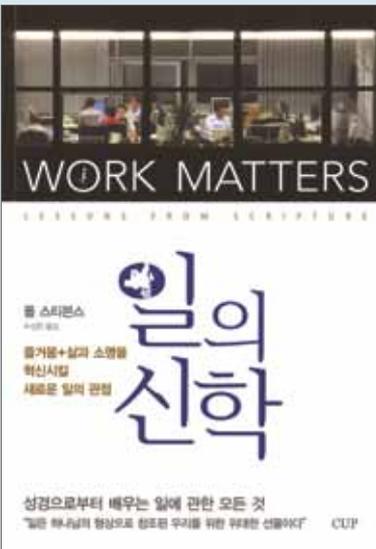
300여 권의 창세기 관련 도서를 펼쳐 봤지만, 이렇게 독특한 주석은 처음이다. 한동기평택대학교 구약학 교수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창세기를 읽으며 가졌을 법한 거의 모든 질문들을 다루고 있다. 전성민 IVEW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



양승훈 지음 | 신국병형 | 456면 | 16,000원

“우리가 믿는 것은 창조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폴 스티븐스 지음 | 주성현 옮김 | 12,000원



직장에서 분투하는 일터 사역자들에게!
폴 스티븐스, 70평생의 연구 결과가 집대성된 필생의 역작

성경의 일터 사역자들을 만나다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기독교 계통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캐나다에서 유학이나 안식년을 계획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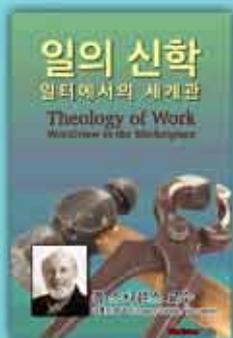
지원 안내

1999년부터 캐나다 최고의 기독교대학인 Trinity Western 대학의 신학대학원인 ACTS(학장: Ken Radant 교수)에서 VIEW(원장: 양승훈 교수)가 개설하고 있는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 과정 및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ipCS)과정의 문을 두드리보세요. MACS/DipCS 과정은 최고의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150여명의 졸업생과 350여명의 동문들(9학점 이상 이수)을 배출하였습니다.

모집분야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Worldview) 과정(54학점/2.5년)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CS-Worldview) 과정(29학점/1.5년)
MACS/DCS 과정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북미주신학교협의회(ATS)가 인정하는 TWU대학원의 정규 학위 과정입니다. ❷ 한국과 캐나다의 최고의 교수진들이 성경, 신학, 리더십, 세계관, 과학, 가정, 사회 등의 영역에서 성경적 조망을 가르칩니다. ❸ 신앙과 삶의 일치, 전공과 직업에 대한 성경적 조망 등, 삶에 직결된 내용을 강의합니다. ❹ 배우자는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졸업 후 Post-Graduate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학사 이상 학력을 소지한 기독교 신자, 토를 점수 불필요
교수진	VIEW 전일교수, ACTS 교수진, 한국어 및 영어권 겸임교수진 20여명
원서마감	4월 1일(가을학기) / 전년도 8월 1일(봄학기)
문의처	worldview@twu.ca view.edu, acts.twu.ca 홈페이지 참고 TEL: 1-604-513-2121(교 3834, 3838) 전화로 문의하실 분들은 한국-캐나다(PST) 시차를 고려해주세요.(한국시간 + 8시간)

기독교세계관강의를 온라인으로 만나보세요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의 세계관 강의를 전세계 어디서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
18개 강의 (\$36)



양승훈 교수
24개 강의 (\$24)



양승훈 교수
30개 강의 (\$30)

- 구입은 1개 강의씩 날개도 또는 전체 강의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하신 강의는 1년 간 다양한 기기에서 제한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또는 PayPal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구입하신 강의는 Watch Later의 VOD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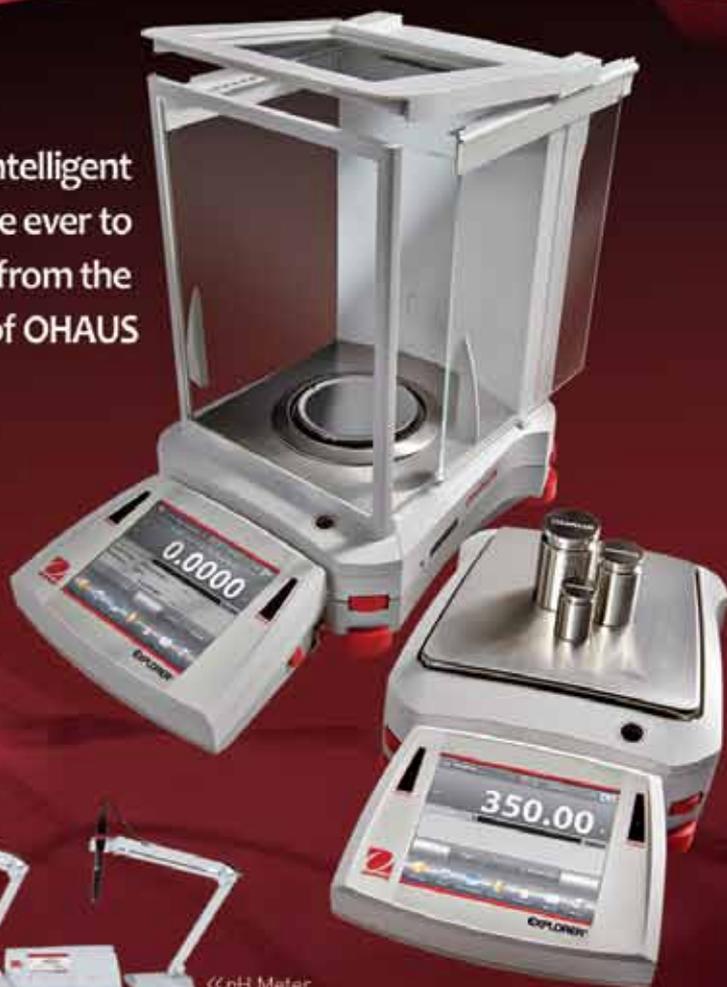


구입처: https://vimeo.com/wvmedia/vod_pages



The all-new OHAUS EXPLORER

Introducing the most intelligent
and intuitive balance ever to
come from the
mind of OHAUS



«Pipette»

«pH Meter»

새로워진 오하우스

- ✓ 정전기 방지 코팅유리
- ✓ 플터치 패드 방식
- ✓ 적외선 감지센서 기능
- ✓ 자동 도어 방식

Specifications

Model	EX124	EX224	EX324	EX923	EX423	EX823	EX1103	EX2002	EX4202	EX8202	EX10202	EX6204	EX10001
Capacity (g)	120	220	320	220	420	820	1100	2200	4200	8200	10200	8200	10200
Readability (g)	0.0001			0.001			0.01			0.1			
Repeatability std (g)	±0.0001			±0.001			±0.01			±0.1			
Linearity (g)	±0.0002			±0.002			±0.02			±0.1			
Stabilization Time (sec)	≤2	≤3		≤1.5			≤1						
Weighing Applications	Weighing, Percent Weighing, Parts Counting, Check Weighing, Dynamic/Animal Weighing, Filling, Totalization, Formulation, Differential Weighing, Density Determination, Peak Hold, Ingredient Costing, Pipette Adjustment, SOC												

오하우스 코리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025호
Tel. (02)2040-6388, Fax. (02)2040-6392
<http://www.ohaus.co.kr>

"생생한 동영상상을 유튜브에서 찾으세요"

YouTube www.youtube.com/ohauschannel



www.facebook.com/ohauscorp

